

Style

조선일보

MARCH 2017
vol.154



Perlé bracelets
yellow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신세계 본점 - 강남점 - 센텀시티 - 대구점
갤러리아 EAST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www.vancleefarpels.com · 00798-852-16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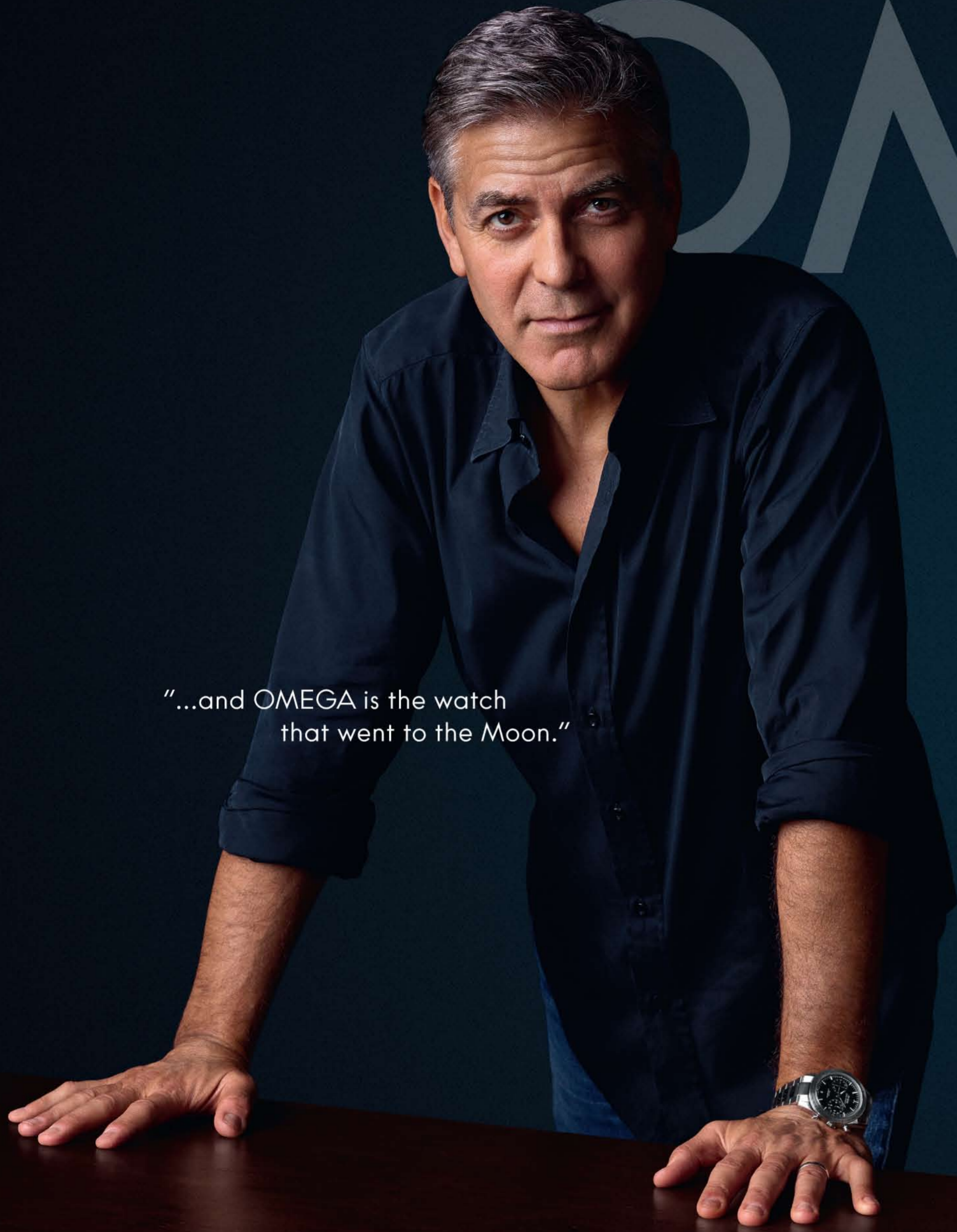
OBJECTS FOR LIFE



BURBERRY



OMEGA



"...and OMEGA is the watch
that went to the Moon."



Speedmaster
GEORGE CLOONEY'S CHOICE
#moonwatch

청담 부티크 · 신세계 강남점 · 롯데 잠실점 · 현대 무역센터점 · 현대 목동점 · 현대 판교점 · 현대 대구점





Style **조선일보**



TODS

표지에 등장한 모델이 착용한 제품은 장인 장수를 이어가는 이탈리아 브랜드 토즈 여성 컬렉션의 아이코닉 아이템인 웨이브 백과 더블 T 로퍼다. 두 가지 아이템 모두 마구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중 웨이브 백은 시간이 지남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최상의 가죽을 사용해 브랜도의 가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문의 02-3438-6008



14



26

Style **조선일보**
Issue.154 March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16 **다양성이라는 가치, 당연한데 왜 어려운 걸까?**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시민을 지배하고 있는 다양성이라는 화두. 다문화 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혼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성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속박된 족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왔을까?
- 18 **PRIME COMBINATION** 스틸과 옐로 골드 조합, 매력적이고도 실용적인 콤비네이션 워치, 브레이슬릿의 볼륨감을 살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매력까지 더한, 현명한 선택이 되어줄 스틸 & 옐로 콤비네이션 워치 컬렉션.
- 20 **SIMPLE INTENSE** 브랜드의 DNA를 고스란히 담아 하나의 아이덴티티로도 고유의 가치와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내는 시그니처 주얼리 컬렉션. 럭셔리 주얼리 하우스에 입문하고자 한다면 이 페이지에 주목할 것.
- 22 **BASIC INSTINCT** 항상 선물로 받은 향수만 써온 당신이라면, 새로운 향수를 선택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향을 찾고 있다면, 클래식 향수 중 고르는 것이 좋다.
- 24 **UTILITY CHIC** 불만이 쇼핑의 포커스는 단연 아우터다. 여기 럽방 스포츠만의 감성을 담아 블레이저 재킷부터 유틸리티 아우터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 스프링 아우터를 눈여겨보자.
- 26 **SWEET LONELINESS** 이른 봄의 스산함과 사랑의 황량함이 주는 처량적인 매력, 그리고 그 낯선 분위기에서도 현지 익숙한 묘한 느낌. 새로운 시즌에 선보이는 빅 하우스들의 감성을 위한 뉴욕과 많이 달랐다.
- 35 **ALL ABOUT 2017 SIHH** 노벨상을 받은 연구진과 합쳐 최선 과학 기술을 시계에 도입하는 것은 물론, 우주의 움직임 한 치의 오차 없이 손목 위에 표현한, 시계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까지. 세계 보연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리로 돌아간 2017 스위스 고급시계박람회 현장을 재해바 현장에서 취재했다.
- 40 **AN HAUTE HOUSE** 하이엔드 패션의 메카인 창당중 중상에는 드레스의 끝자락처럼 유연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하얀색 건물, 하우스 오브 다움'이 있다. 건축가 크리스찬 드 포르장파르카 설계한 건축물만으로도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이곳에 들어서면 오감, 그 이상을 만족시키는 예술적인 공간과 경향이 눈앞에 펼쳐진다.
- 42 **GOOD LUXE** 어느 수진가의 특별하고 클래식한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조금은 사치스럽지만 수집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품은 럭셔리 브랜드의 스페셜 아이템.
- 43 **TIMELESS ICONS**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토즈(TODS)가 3월 29일, 서울 모스 스튜디오에서 (타일리스 아이콘) 시즌집 출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 44 **ANOTHER DAY OF LA LA LAND**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문화 도시임에도, 뉴욕에 비해 자못가되어 아쉽다. 로스앤젤레스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며, 현대미술과 미식의 새로운 메카이기도 하다.
- 46 **EDITOR'S PICK** 섬글 다기온 봄을 알리는, 핑크빛으로 물든 뷰티 신제품을 〈스타일 조선일보〉가자들이 직접 체험했다.

© TIFFANY & CO. SWISS WATCHES SAGL 2017 TIFFANY.COM



Tiffany East West®
 From the Inventors of the New York Minute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포토그래피 박건주

Jewel SHINING ACCENT
 컷블에 작지만 아름답게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단아하게 반짝이는 이어링.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 사람의 지문처럼 연상케 하는 유니크한 디자인에 핑크 오팔 원석을 다룬 아펠레르도 드 카르페에 이어링 5백10만원 대 **카르페**, 7월 한정판 부채 모티브가 유니크한 디자인에 2백만원대 **블리디**, 약 2.8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이어링 3천 3백만원대 **피아제**, 하트 모양의 꽃잎을 입체적으로 디자인한 프라블 컬렉션 다이아몬드 이어링 1천9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물방울 모양 이우아틴 세팅 컬렉션 다이아몬드 이어링 5백만원대 **부쉐**, 티파니의 'T' 마니얼을 스파이 모티브로 워트 있게 디자인한 티파니 T 스파이 이어링 802만원대 **티파니**, 진주 혹은 가운을 앞뒤로 교체해서 착용할 수 있는 라피엔트 라펠로 가닛 이어링 3백만원대 **타사기**, 에디터 **권유진**



Focus 하이주얼리를 경향하는 특별한 학교, 레플 반클리프 아펠

일함브라, 베를리 등 여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프린치 주얼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 1906년에 설립된 반클리프 아펠은 하이주얼리 분야에서 장인 정신과 섬세한 세공 기술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브랜드의 역사와 주얼리 그 자체의 가치를 더욱 널리 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매종의 주얼리 스쿨인 레플 반클리프 아펠을 개교하는 인상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주얼리와 워치메이킹의 역사, 문화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설립한 만큼,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일반 주얼리 스쿨과 달리 레플 반클리프 아펠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주얼리 감정 권위자, 교수진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하다. 직접 주얼리 메이킹 과정에 참여해 매종만의 기술을 전하고, 이를 통해 보석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레플 반클리프 아펠은 브랜드의 본류인 피라, 그리고 국내외 가장 가까운 홍콩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데, 홍콩의 카리콜럼은 예술사, 원석의 세계, 그리고 장인 정신이라는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한 10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사 강의를 통해 경이로운 주얼리 세계를 구성하는 미적 요인과 상징에 대해 배우고, 원석의 세계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각 원석의 기원과 변천사는 물론 진귀한 원석을 구별하고 다루는 법을, 장인 정신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반클리프 아펠의 워치메이킹 분야의 주얼리메이킹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 최대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강하는 3~4시간 동안 진행되며 최고의 주얼리, 미술 고고학자, 보석학자, 시계 역사가, 워치메이커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하기에 보석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보아야 할 프로그램이다. 각 강의의 마지막에는 강의를 성공적으로 수료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레플 반클리프 아펠의 학장 마리 발라네-델롬(Marie Vallanet-Delhom)의 사인이 들어간 수료증을 수여한다는 것도 특별하다. 에디터 **배미진**



www.brunellocucinelli.com



포토그래피 박건주
 스타일링 박건주
 사진 양민석, 유원희, 이시진, 이은지

Fashion HAT TRICK

맛있는 룩에 걸려들면 모자 하나만 더해도 멋스러운 포인트 액세서리가 될 것이다. 클래식한 매력의 보터 햇과 우아한 분위기를 발산하는 브림 햇 등 당신이 가장 손쉽게 스타일링이 될 수 있는 모자 셀렉션.

편 윗부터 시계 방향) 캐시미어 디루는 데는 최고라고 자랑하는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원사에 풀과 수증기만 사용해 전통 기법으로 완성된 인그리드 벨벳 펠트 모자 1백64만원 **로로피아나**,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와 매릴 스트립 등이 애용하는 울리우어는 1903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줄리나 울리우어가 설립한 모자 브랜드다. 신상 털로 만든 레드 색상의 모자 45만원 **울리우어 by 아이비리아**, 이미 국내 패션 브랜드 편집숍을 통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매종 미셀은 사설의 수석 액세서리 디자이너 크리스티아나 크라이비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프랑스 하이엔드 모자 브랜드다. 시그니처 M 로고와 함께 고급스러운 소재와 색감이 돋보이는 모자 98만원 **미셀 by 10 코스 코오**, 할리우드 팝 가수 라디가가와 리한나 등 개성 있는 셀브라티들이 사랑하는 모자 브랜드 패라카 모데리. 모든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정교한 핸드메이드 공정을 거쳐 제작된다고. 토기 펠트 모드로 만든 연보라색 모자 44만원 **패라카 모데리 by 아이비리아**, 에디터 **이재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Hot Spot SELECTIVE LIVING SHOP, DANSK

SNS 열풍을 타고 집 꾸미기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을 멋지게 꾸미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인테리어 리빙 스타일링을 둘러보는 것도 방법이다. 각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와 소품의 조화를 보면 저절로 보는 눈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여기 당신의 인테리어 취향을 높여줄,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스펀크(Dansk)를 소개한다. 가구와 인테리어, 특히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에 관심이 있다면 덴마크의 존재감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덴마크는 'Danish in Danish(덴마크어)'라는 뜻으로, 최근 불어낸 리빙 스타일링 스타일의 흥수 속에서도 오랜 시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1세대 리빙 스타일링 가구 갤러리다. 이곳에선 1950년대 오리지널 빈티지 가구뿐 아니라 현재 스칸디나비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 전통과 장인 정신이 깃든 북유럽 생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지하 1층부터 4층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콘셉트에 맞게 구성된 가구와 소품으로 가득 찬 덴마크는 품격 있는 가구 셀렉션뿐 아니라 시즌에 맞는 제품을 공간마다 큐레이팅하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가구와 공간에 대한 철학이 뚜렷한 김윤진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가구와 소품, 이트피스까지 한자리에 어울려져 있기 때문. 새롭게 공간을 채워야 할 예비부부, 혹은 공간의 분위기를 살릴 가구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는 이들이라면 덴마크를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문의 070-7475-4254 에디터 **이재진**



Cuisine 불날을 상큼하게 만들어줄 미식의 전당,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

생명의 기운이 넘실대는 불날의 마력을 북돋울 만한 반기는 소식이 있다. 명굴스, 정식당, 리먼 등 한국 레스토랑 32방이 2017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에 이름을 올리면서 자만할 태국 방콕의 W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이 명단은 전문 기자, 비평가, 셰프 등 아시아 지역 레스토랑업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3백 명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 아카데미의 투표로 선정된다. 서울의 명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위 자리를 지켰고, 정식당은 25위를 차지했으며 신라호텔의 한식당 리먼은 12계단을 경총 뛰어올라 38위에 자리했다. 또 서울 신사동에 자리한 레스토랑 토틸(TocTo)은 한국의 제철 재료를 독창적으로 활용해 세련된 프랑수아 메뉴를 선보인 점을 인정받아 이 순위와 별개로 아시아 지역의 신성으로 여겨지는 곳에 수여하는 밀레 주독해야 할 레스토랑 상을 가졌다. 영예의 1위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기간이 3년 연속 차지하는 강세를 나타냈다. 태국은 수랑(13위), 더 하우스 오브 시몬(36위), 레두(37위), 리틀리드 조엘 로부스 빌크(40위) 등 9개 레스토랑이 50위권에 들면서 미식 강국의 면모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6위에 오른 니시야마를 비롯해 도쿄 레스토랑 여섯 곳이 20위권, 아홉 곳이 50위권에 안착했다. 싱가포르 역시 9개 레스토랑을 톱 50에 올렸는데, 그중 최고는 인드레 차임 세프가 운영하는 인드레(전체 2위)가 차지했다. 이 밖에 '아시아 베스트는 홍콩의 양버(전체 3위), 필리핀 베스트는 마닐라에 있는 갈라리 바스코(35위)가 선정됐다. 자세한 명단은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www.theworlds50best.com/asia/en/our-manifesto.html 에디터 **고성연**



백엔드의 상징인 우렁기 형으로 앞쪽! 다채로운 포인트를 중 보라색이 42x23cm, 4백만원대 보자기 매너다.

멀티컬러 스트라이프 패턴이 돋보이는 지갑 53만원대 렌디.

블루 컬러 티트 렌즈가 포인트인 라운드 세이프 선글라스 30만원대 레이벤 by 루스타카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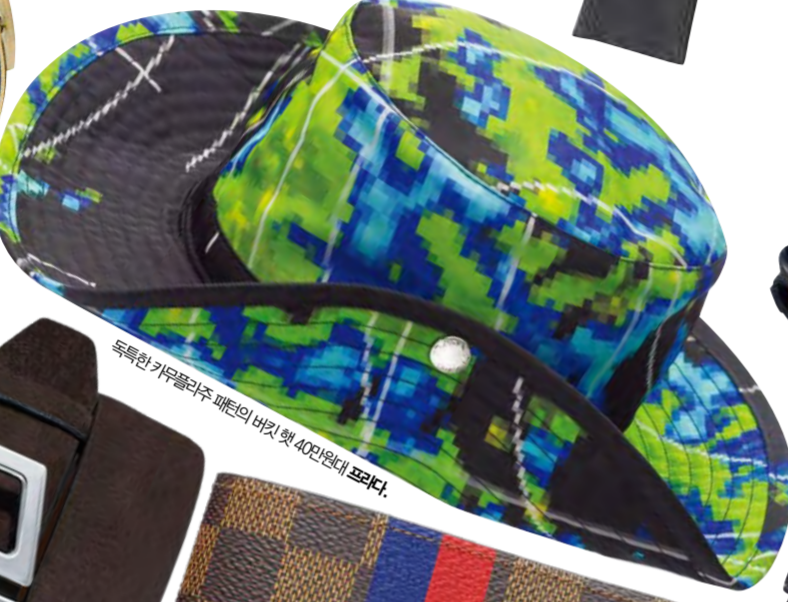


셔츠에 매치하면 귀여운 매력을 발산할 니트 2백60만원대 톨 브라운 by 10 고르스 꼬모.



F1 레이싱 머신 제조사인 리모렌과 협업해 탄생시킨 RM50-03 워치 가격 미정 라차드 밀.

메탈 버클 디테일의 소가죽 벨트 56만원대 토즈.



독특한 카우보이 패턴의 버킷햇 40만원대 토디.



다리에 캔버스 위에 얼룩말을 새긴 남성용 반지갑 가격 미정 루이 비통.



꽃무늬와 스칼라 패턴이 어우러진 하이탑 스니커즈 2백만원대 디올.

ASERBIA에 영감을 받아 만든 아이젠트. 감수성 이터이 디자인.

for him Selection

컬러풀하면서도 다양한 패턴이 어우러져 에너지적인 기운이 넘쳐나는, 남성을 위한 뉴 시즌 뉴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리투어처럼 보이는 화려한 장식이 새겨진 레이싱업 스킨.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베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을 한 가지가 아닌 패턴을 조합한.



컬러풀한 기운이 패턴이 인상적인 백팩. 34x46cm, 1백만원대 자황시.

- 구찌 1577-1921
- 토즈 02-3438-6008
- 렌디 02-2056-9023
- 디올 02-3480-0104
- 프라다 02-3218-5331
- 루이 비통 02-3432-1854
- 분다삼 02-3444-3300
- 필립 플레인 02-544-9132
- 자황시 02-517-7560
- 에르메스 02-544-7722
- 리차드 밀 02-2230-1288
- 10 고르스 꼬모 02-3018-1010
- 보네가 베네타 02-515-5840
- 루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 발렌티노 가베나 02-6905-3610

도널드 덕 캐릭터와 독특한 휘는 줄라가 잘 어울린 니트 베스트 3백17만원대 구찌.

강남구 압구정로 458 - SEOUL
02. 514. 0900



moncler.com



LIU BOLIN PERFORMING FOR MONCLER



for her
Selection

활기찬 레드 컬러를 필두로 새롭게 선보이는 로고 디자인부터 싱그러운 봄을 상징하는 플라워 모티프까지, 이번 시즌 여성들이 주목해야 할 신제품.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플라워 아몰리케 장식으로 편안한 느낌을 지어내는 트윈드 재킷 3백80만원대 **자켓바티스타 발리**.

조형물처럼 보이는 아티스틱한 디자인의 드롭 이어링 9만원대 **셀린느**.

화이트 레커 다이얼에 레드에 가까운 핑크 컬러 스트랩을 매치한 케이프 코드 GM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브러쉬 디자인에 상징적인 숫자 1829를 다룬, PVC 소재의 하트백, 36x27cm, 1백80만원대 **발리**.

다채로운 컬러를 재미있게 조형한 스트랩을 49만원대 **토리버타**.

크로스 프레임에 큼직한 로고로 포인트를 준 크로스 핑클 가격 미정 **사벨**.

여러 겹이 레이어드된 캐주얼 아이 프레임이 독특한 선글라스 40만원대 **미우미우 by 룩소티카 코리아**.

바탕색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 플라워 스카프를 89만원대 **인오케**.

칼랑 스카프를 연상시키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토트백, 11.5x32cm, 2백만원대 **에르메스**.

사실상의 유행 아이템, 감수된 여미 아티스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행렬이 배반이 매력적인 레드 배낭이 20만원대 **프라다**.

매달 링 루프와 체인으로 장식한 페이 백백, 17x19cm, 2백만원대 **발리**.

THE JADIOR - I Adore Dior이라는 문구가 새겨 스텝이 포인트인 플러시 1백만원대 **디올**.

안쪽에 꽃 자수를 새긴 체크 패턴 재킷 4백40만원대, 리플러한 핑크색 블라우스 1백36만원대 모두 **구찌**.

사벨 02-543-8700
오브제 1544-3966
발리 02-3467-8935
셀린느 02-540-0486
엘보 02-3449-5316
골로에 02-515-1196
프라다 02-3218-5331
루이 비통 02-3432-1854
구찌 1577-1921
에르메스 02-544-7722
디올 02-3480-0104
인아윈드미치 02-6905-3336
벤디 02-2056-9023
토리버타 02-515-4080
에르메스 워치 02-3015-3283
자켓바티스타 발리 02-6905-3357
룩소티카 코리아 02-501-4436

©2016 ISSEY MIYAKE INC.



ISSEY MIYAKE

www.isseymiyake.com

THE SHILLA SEOUL 02-2231-6282 HYUNDAI MAIN 02-3438-6290 HYUNDAI COEX 02-3467-8433 HYUNDAI KINTEX 031-822-3277 HYUNDAI PANGYO 031-5170-1268
HYUNDAI BUSAN 051-667-0440 HYUNDAI DAEGU 053-245-2225 HYUNDAI ULSAN 052-228-0475 SHINSEGAE MAIN 02-310-5358 SHINSEGAE GANGNAM 02-3479-1787
SHINSEGAE GYEONGGI 031-695-1383 SHINSEGAE CENTUM CITY 051-745-2468 SHINSEGAE DAEGU 053-661-6362 LOTTE MAIN 02-2118-6099 LOTTE JAMSIL 02-2143-7213
LOTTE BUSAN 051-810-4217 AK PLAZA BUNDANG 031-781-8258 DEBEC PLAZA 053-426-1668



다양성이라는 가치, 당연한데 왜 어려운 걸까?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시민을 지배하고 있는 다양성이라는 화두. 다문화 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혼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성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속박된 족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봤을까? 최근 화제가 된 대중문화 콘텐츠를 계기로 다양성을 둘러싼 여러 함의를 살펴 들어다본다.

지난 2월 말, 지구촌 곳곳에서 생계제된 제89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수상작 반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상' 수상작이 실수로 잘못 호명되는 바람에 이미 트로피를 받아 든 채 돌아가면서 소감을 발표하던 영화 <라라랜드> 제작진이 당황스럽게 몰려나고, 진짜 수상작인 <문라이트> 감독과 배우, 제작진이 뒤늦게 무대에 올라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감격의 순간을 누렸다. 알고 보니 주최 측 직원 이 작품상 발표자인 원로 배우 워런 비티에게 여우 주연상 수상자(<라라랜드>의 엠마 스톤) 봉투를 전달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다. 트로피를 돌려준 이들도, 건네받은 이들도 민망한 상황이 되면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오스카'의 권위는 타격을 입었다. 그렇지만 이미 얼질러진 물이니, 이날 시상식 진행자 지미 키벨의 순발력 돋보이는 마무리 멘트처럼 그래도 더 많은 이들이 수상 소감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을 도리밖에 없어 보였다. 또 이 역대급 헤프닝의 희생양이 개인 자격으로 상을 받는 배우나 감독 부문이 아니라 작품상 부문이었다는 사실도 그나마 다행으로 느껴졌다(누군가 무대에서 홀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수상 봉투를 통고받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애처롭다).

트럼프 정부가 일으킨 아카데미의 변화, 더 이상 '화이트 오스카'가 아니냐
작품상 발표 시점에서 이미 6관왕을 차지한 <라라랜드>가 아니라 <문라이트>가 트로피 반납의 운명을 겪어야 했다면 상대적으로 더 안타깝지 않았겠냐는 목소리도 많이 들렸다. 그 이유는 <문라이트>가 아카데미 수상작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전체적인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그 영광을 둘러싼 다른 함의도 여러모로 돋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30대 흑인 감독 배리 젠킨스가 연출을 맡아 역대 최저 제작비(1백50만달러로 추정된다)로 만든 이 작품은 마이애미 빈민가를 배경으로 흑인이자 성 소수자인 한 아이가 소년으로,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담담하게 풀어낸다. 소위 다양성 영화. <문라이트>가 최고 영예로 일컬어지는 작품상(2014년 <노예 12년> 이후 흑인 감독의 영화가 작품상을 거머쥔 건 두 번째)은 물론 각색상, 조연상까지 휩쓸면서 3관왕에 오른 데다 흑인 베테랑 배우 비올라 데이비스가 <웬스>로 여우 조연상을, 시리아 민방위대의 인명 구조 활동을 담은 <하얀 헬멧>이 단편 다큐멘터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백인민의 전치라는 의미에서 화이트 오스카'라는 비아냥을 들던 아카데미가 '드디어 달라졌다'는 평을 받았다. 다양성의 가치를 한층 신성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아카데미가 올해는 꽤나 '정치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란 예측이 쏟아졌다. 반이민 정책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이기에 반(反)트럼프 분위기가 강한 데다, 아카데미 차원에서조차 차별에 대한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논리에서다. 실제로 시상식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유머 섞인 일침이 넘쳤고, 상당수 참석자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파란 리본을 달고 등장하기도 했다. 또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이란의 감독 아쉬가르 파르하디는 비인간적인 법에 모욕당한 이란 국민과 다른 6개국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불참했다는 내용의 수상 소감을 글로 남기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 덕분에 문화계가 뚝뚝 무치게 된 셈이다.

이런 풍경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이어서 불편하게 여기기보다는 호뭇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다양한 가치를 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정성을 버리고 소수자 집단에 특혜를 줬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심사도 인간이 하는 일인 만큼 저마다의 잣대는 다른 법이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책 있는' 수상이니 말이다(다양성을 '의식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어쩌면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지 않는 태도 자체도 '편향된' 것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덕분에 작품의 가치가 온전히 평가되고 부각된, 정당한 사례가 아닐는지).

또 다른 형태의 차별? 다양성이라는 가치의 무게와 족쇄
하지만 월계관이 잘 어울리는 <문라이트>의 수상과는 별도로 다양성의 가치라는 주제는 분명 곰곰이 생각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듯하다. 대중문화 콘텐츠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기업 영역에서도 오늘날 다양성은 큰 화두인 동시에 난제와 아닌가. 다민족, 다인종 사회인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전반적으로 신(新) 유목민 시대라 불리는 21세기의 지구촌은 '다양성-진정한 생태계'라는 명제에 포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화, 다문화주의, 정치적 다원성, 생물 다양성 등 다양성을 둘러싼 온갖 논리와 과제에 항상 노출되고 휘둘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흔히 다양성은 평등과 관용과 같은 선상에 놓이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처럼 여겨지지만, 다양성 민중주의에 비판적인 진영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류학자인 피터 우드는 현대사회의 권력자가 된 다양성의 명암에 대해 좀 더 풍부한 논의를 펼쳐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킨 인물이다. 그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이를 논할 때 처음 제기된 이래 서로 다른 민족, 성별, 종교, 성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한 다양성이 어느덧 상식이자 신(善), 심지어 신화가 되어버렸으면서 인위적으로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면 순수한 구별과 비판마저 봉쇄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려 다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특혜가 권력화되면서 역차별과 비효율을 조장하고 민족적, 사회적 정체성에만 주목하는 편향에 빠져 인간이 본래 의도했던 진정한 다양성을 해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기득권을 지닌 보수 우파의 편협한 논리가 섞여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을 지양한다는 맥락에서 피터 우드의 주장은 귀담아 들을 만한 측면이 꽤 있다. 웬만한 사회에서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법, 제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 중 오히려 사람들을 특정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들은 000야"라고 규정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생겨나 현실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런 부작용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목격할 수 있다. 특정 성별이나 인종 등을 옹호하다가가는 전체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기도 하는데 말이다.

예컨대 인도 출신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 캄보디아계 미국인의 공통점은 그들이 아시아인이라는 걸까, 미국인이라는 걸까(정자 본인들은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녀도 다른 사람들은 '아시아인'이라는 공통분모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미국인인, 아시아인 이든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하면 모두 다 비슷한 특성을 지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을 '집단을 우선시하고 비차별한 성향의 아시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우문답이 분명하지만, 어쩌면 아시아에서의 문화적 경험이 별로 없는 유럽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반대로 K-팝을 좋아하는 노동당 소속의 성공회 신자 영국인, 불교도이면서 보수파인 프랑수아를 그쳐 '유럽인'이라고 묶어버린다면 개인의 다양성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속상해할 것이다.

혼종의 시대에 창의적으로 진화한다는 것
사실 인류에게 다양성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종, 민족, 언어, 성별, 종교, 기호와 성향 등으로 따질 때 인간은 매우 다채롭게 진화해온 존재 아닌가. 이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도 당연한 현실일 터다. 그렇게 여러 문화가 저마다 알아서 꽃피고 시들도록 놔두면 별 탈 없을지도 모르지만, 문화 평론가 김현식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안타깝게도(?)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다. 그는 사람이 움직이므로 문화 역시 움직이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히고, 융합과 충돌이 생겨난다고 했다. '문화적 혼종의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예전에는 소수가 다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용광로에서처럼 하나로 흡수되는 '멜팅팟(melting pot)' 문화를 주로 지향했다면, 이제는 섞이기는 하되 재료가 저마다 고유한 개성

을 잃지 않은 채 어우러지는 '샐러드 볼(salad bowl)' 문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저마다의 고유한 맛과 색을 완전히 잃지 않더라도 어우러지는 가운데 큰 틀에서는 새로운 맛이나게 마련이고 말이다. 이를 기업이나 각종 단체 같은 조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창의성과도 연결된다. "다양성은 생명체가 지구에 가져다준 위대한 선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 평등이나 공정성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창조성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다양성이 적극 옹호되는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그토록 '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현실에서의 고정관념은 그리 많이 바뀐 것 같지 않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교육은 행동은 돌체치고 태도조차 바꾸지 못한다면서 작은 실천이라도 적극적인 행동 설계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오케스트라 연주 실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나다는 인식 같은 걸 고칠 수 있겠다. 세계적인 경영자 <허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실린 글에 따르면 1970년대에 미국 오케스트라에서 여성 연주자 비율이 10%도 채 못쳤는데, 그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단지 심사위원들의 인식 때문이었다. 그런 편견이 '블라인드 오디션'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놀랍게도 이 단순한 변화가 오케스트라의 여성 비율을 거의 40%까지 끌어올리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201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 명단에 들어 있던 영화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 역시 인간의 편견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사례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그 전신인 항공자문위원회(NACA)에서 일한 흑인 여성 수학자들에게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흑인+여성+수학'이라는 조합은 지금도 대다수의 편견에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클진데, 심지어는 흑백 차별이 심했던 20세기 중반에 차별의 벽을 딛고 조직의 편견을 바꿔버린 이들의 이야기다.

아무리 잘게 카테고리를 나눠도 결국 집단의 유사성보다는 개개인의 다양성이 훨씬 더 뚜렷할 것이다. 인류 역사에는 길과 속이 똑같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니 말이다. 세상에 다양한 스토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라이트>나 <히든 피겨스> 같은 영화에 '다양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일지도 모르겠다. 굳이 분류하자면 '저예산 영화'가 있고, '블록버스터'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냥 어떤 영화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지구인인 셈이고 말이다. 어쨌거나 대중문화 콘텐츠가 우리의 인식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아카데미 효과'에 힘을 입었든 아니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는 이런 영화들의 흥행은 바람직한 것 같다. **에디터 고성연**



BVLGARI 대담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남녀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비제루원 컬렉션. 불가리 더블 로고 장식과 나선 모티브가 특징이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핑크·옐로·화이트 골드를 믹스한 펜던트 네크리스 3백만원대, 블랙 세라믹 링 1백만원대,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9백만원대,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핑크·옐로·화이트 골드 소재의 링 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CHAUMET 쇼메의 상징적인 컬렉션이자 연인을 뜻하는 크로스 링 모티브인 연인에 산뜻한 컬러 스톤을 더해 새롭게 선보이는 주드 라인 컬렉션. (왼쪽부터) 핑크 옐로 브레이슬릿, 크리스탈라이즈 네크리스 각 1백90만원대. 문의 02-3442-3159



BOUCHERON 숫자 3을 의미하는 피트로 컬렉션은 부세론의 고유 모티브 네가지를 담은 유니크하고 현대적인 작품이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트로 클래식 체인 브레이슬릿 6백만원대, 피트로 클래식 다이아몬드 스몰 링 1천만원대, 피트로 미니 펜던트 9백만원대, 피트로 블랙 페팅글러 펜던트 9백만원대. 문의 070-7500-7282

Simple intense

브랜드의 DNA를 고스란히 담아 하나의 아이템만으로도 고유의 가치와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그니처 주얼리 컬렉션. 럭셔리 주얼리 하우스에 입문하고자 한다면 이 페이지에 주목할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PIAGET 피아제를 상징하는 우아하고 탐스러운 장미 모티브를 담은 로즈 당텔 컬렉션. 오픈워크로 디자인한 장미 모티브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그 옆에 진주, 핑크 사파이어 등의 원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피아제의 주얼리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각 1백만원대. 문의 02-540-2297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 아펠 알함브라 컬렉션의 뒤를 이을 새로운 아이콘, '프리카' 컬렉션. 하트 모양 꽃잎을 모티브로, 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볼륨감을 선사한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옐로 골드 펜던트,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각 2백10만원, 옐로 골드 이어링 3백30만원. 문의 00798-852-16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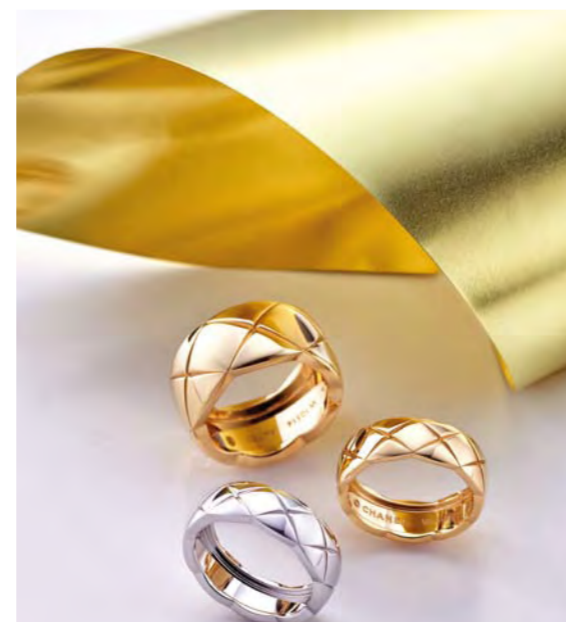
TIFFANY & Co. 브랜드 이니셜인 'T'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티파니 T 컬렉션. 여러 개 혹은 시계와 매치해도 세련되고 멋스럽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티파니 T 다이아몬드 스마일 미니 펜던트 2백80만원대, 티파니 T 스마일 펜던트 1백40만원대, 티파니 T 다이아몬드 와이어 브레이슬릿 4백70만원대, 티파니 T 스퀘어 링 각각 1백90만원대, 티파니 T 다이아몬드 투 링 4백80만원대. 문의 02-547-9488



TASAKI 아케는 타사키의 클래식 아이콘이 된 '벨런스' 컬렉션. 동일한 크기의 최상급 아코야 진주를 골드 바 위에 정교하게 세팅한 유니크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벨런스 시그처 옐로 골드 링 2백80만원대, 벨런스 에라 링 2백30만원대, 벨런스 시그처 네크리스 4백80만원대. 문의 02-3461-5558



CARTIER 전용 드라이버가 있어야만 착용할 수 있어 연인들 사이에서 사랑의 사리의 의미로 많은 사랑을 받은 '러브' 컬렉션. 올해는 기존 러브 브레이슬릿보다 앞은 뉴 러브 브레이슬릿을 새롭게 추가했다. (왼쪽부터) 뉴 러브 브레이슬릿 4백90만원대, 러브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러브 네크리스 5백80만원대. 문의 1566-7277



CHANEL FINE JEWELRY 샤넬 2.55 백의 상징적인 모티브이기도 한 XXZ 컬렉션 패턴을 주얼리에 대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코 크러쉬' 컬렉션. 해·만 착용해도 돋보이는 존재감을 발산한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코코 크러쉬 라지 링 3백만원대, 코코 크러쉬 스몰 링 각 2백만원대. 문의 02-3442-0962 에디터 권유진

WWW.OBZEE.COM



OBZÉE



면 유포터 시계 방향) **샤넬 블루 드 샤넬 오 드 페르** 평 여성을 위한 샤넬 N5가 있다면, 남성에게 블루 드 샤넬이 있다. 블랙에 가까운 검정색 네이비 블루 보틀에서 풍기는 신비로움과 관능미는 향으로도 이어진다. 압도적인 우드 향과 함께 아로마틱 허브 잎의 상쾌함이 자연스럽게 아우러지며, 롱 노트에 섹스우드의 풍부함을 담아 자취가 먼서도 새련된 향을 연출해준다. 100ml 16만2천원, 문의 080-332-2700

캘빈클라인 씨케이 원 처음 향수를 고르는 입문자에게 가장 적합한 향수. 베르가모트와 파인애플, 피파야, 그리고 씨케이 원을 대표하는 그라피 향이 어우러진 이 향수는 청명한 허블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향을 자랑하며 은은하게 마무리되는 머스크의 진취까지 완벽하다.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이는 보틀이 아닌, 실용성 플라스틱을 담은 깨끗한 미니멀리즘 보틀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100ml 7만3천원, 문의 02-6924-6572

존 바버토스 아티산 여성들이 남자 친구를 위한 선물로 가장 많이 구매한 향수를 꼽으라면 단연 존 바버토스 아티산이다. 시트러스 우디 계열 향으로, 만다린 오렌지 등 주시한 감귤류 향으로 사적해 재스민과 진저 향이 뒤섞인 미들 노트로 이어진다. 머스크와 우디 향으로 마무리된다. 장인의 정교한 손질이 담은 고급스러운 등나무로 된 아티산향 캔이 돋보인다. 75ml 8만2천원, 문의 02-3443-1805

불기리 블루 울 불기리 블루는 남성 향수 전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제품으로, 남성이라면 한번쯤은 지어두고 싶은 향수다. **씨케이 원** 가장 대중적인 향수다. 콜라겐과 나뭇잎을 건조한 남성성을 위한 향으로, 특유의 프레스향에서 스파이리한 허브 노트의 독특한 결합이 매력적이다. 50ml 9만원, 문의 080-990-8888

크리드 아벤투스 향수가 남다른 스타일러시한 남성이라면, **울**은 보유하고 있을 만큼 돋보이는 명성을 지닌 크리드 향수. 그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유니크한 향을 선보이는데, 그중 7대에 걸친 조향사가 만든 크리드의 아벤투스는 나뭇잎을 향기를 지니는 듯에서 탄생한 향. 실제 나뭇잎이 아닌 프랑코 코르 시카에서 공수한 버러류 중 하나인 블랙 커번트를 주원료로 삼았다. 신선하면서도 특유의 웅장함과 카리스마를 풍기는 플로럴 머스크 계열의 향이 매력적. 75ml 36만8천원, 문의 02-517-5218

산토리니아 노벨라 아쿠아 디 콜로니아-루사 이는 사람들과 인연, 나만 알고 싶은 향의 대표 주자 산토리니아 노벨라, 토스카나 지방의 명물, 시골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으로, 타바코 플라워의 강인함에 바닐라, 화이트 머스크의 부드러운 향이 어우러진, 강인한 남성성에 따뜻한 미소를 더한 매력적인 향을 표현했다. 전통 방식으로 한 병 한 병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심플하지만 기품 있어 보이는 용기가 고급스러움을 한층 부각한다. 100ml 17만8천원, 문의 02-546-1612

폴 포드 뉴아르 익스트림 특유의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브랜드 내일 밸류로 많은 마니아층을 보유한 폴 포드 향수. 이 향수는 폴 포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남성 향수로, 딱히 어느 계열이라고 정의하기 힘든 오묘한 향,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매력을 담은 향수 보틀이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첫 향은 따뜻한 시트러스의 풍부한 플로럴과 함께 시작된다. 곧이어 만다린 오렌지와 특이 프라카의 내츨리 오일이 대조를 이루며 묘하게 아우러진다. 쉽게 말하면 수 없었던, 친근한 듯하면서도 생소한 향의 조화가 궁극을 지어낸다. 50ml 13만원, 문의 02-3440-2636 **에디터**

basic Instinct

항상 선물로 받은 향수만 써온 당신이라면, 새로운 향수를 선택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향을 찾고 있다면, 클래식 향수 중 고르는 것이 좋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편안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기록될
단 하나의 매트리스
THE HERITAGE OF SLEEP SCIENCE
ACE HERITZ



THE NATURE OF ACE HERITZ



WOOL
수분을 흡수, 발산하는 기능이 탁월하여 4개월 내내 쾌적한 수면을 보장하는 100% 순수 양모



HORSE HAIR
속이 비어 있는 튼튼 구조로 수면 시 발생하는 수분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천연 에어컨



ORGANIC COTTON
화학비료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100%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한 목화만을 사용하여 만든 식물성 천연 소재

ACE AVENUE	ACE SQUARE	울산점 (052)260-0140	롯데전주점 (063)289-3526	현대목동점 (02)2163-1861
서울점 (02)541-1001	수원점 (02)498-1535	인천점 (02)2699-9923	아이파크점 (02)2012-2073	신세계강남점 (02)3479-1978
대전점 (042)527-1881	화천점 (031)232-7121	백화점	현대분점 (02)3449-5409	신세계태릉점 (051)745-2367
대구점 (053)761-1991	화천점 (051)646-7121	롯데월드타워점 (02)3213-2642	현대무역점 (02)3467-8571	신세계대구점 (053)661-6734
			현대판교점 (031)5170-2874	대리점
				강남점 (02)545-3161
				청담점 (02)545-0672
				분당금곡점 (031)712-4161



SPORTY JUMPER

고급스러운 에슬레저 룩뿐 아니라 스타일리시한 데일리 룩으로도 적합함, 랭방스포츠만의 액티브한 감성을 더한 컬러, 경량 스트레치 소재와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활동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실용적인 스타일로 선보인다. 그레이와 화이트를 배색한 심플하고 모던한 스포티 정퍼 58만원, 브랜딩의 시그니처 넥 디자인을 가미한 티셔츠 23만원, 트렌디한 웨빙 디테일이 돋보이는 레더 백백 32X45cm, 58만원 모두 랭방스포츠.



Utility chic

UTILITY OUTER

실용적이고 액티브하면서도 세련된 시티 웨어를 찾는 이들을 위해 랭방스포츠가 인비트윈(in-between) 아이템을 제안한다. 비로 시베리 재킷처럼 정퍼와 재킷의 중간 형태를 띠는 유틸리티 아우터로, 수트나 캐주얼한 데님 팬츠에도 두루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다. 영랑이를 살짝 덮는 기장과 가벼운 소재로 편안한 시티 웨어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다크 그린 컬러의 유틸리티 아우터 68만원, 라바 코팅 소재와 무광 레더를 믹스해 고급스러우면서도 가벼운 무개를 자랑하는 백백 31X47cm, 58만원, 데님 배색 클라치 30X22cm, 32만원 모두 랭방스포츠.



사진출처: 유틸리티 아우터: 이대영

BLAZER JACKET

랭방스포츠는 기존 재킷의 편견을 깨, 편안하면서도 격식 있는 블레이저 재킷을 선보인다.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에 경량 스트레치 소재를 더해 입었을 때 착용감이 우수하며 구김이 잘 가지 않고 가볍다. 캐주얼한 데일리 룩은 물론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트래블룩도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 보가린 해도 시원한 블루 블레이저 재킷 55만원, 그래픽 프린트 화이트 티셔츠 23만원, 어깨끈을 활용해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메신저 백 41X16cm, 42만원, 블루 그레이 컬러 포인트 스니커즈 42만원 모두 랭방스포츠.



SHIRT OUTER

환경이 예뻐 즐겨 입기 좋은 트렌디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의 아우터형 셔츠, 코트나 재킷에 하나로 연출하거나 가벼운 티셔츠 위에 레이어링해 아우터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풍성한 컬러의 팬츠와 매치하면 이번 시즌 트렌드인 올인원 스타일의 룩으로 즐길 수 있을 듯. 다크 그레이 컬러의 아우터형 셔츠 42만원, 무광 레더 민트 & 그레이 투톤 클라치 29X20cm, 32만원, 그레이 & 레드 투톤 클라치 30X22cm, 32만원, 데님 소재 스니켈 12만원 모두 랭방스포츠. 문의 02-3438-6252(한글투화점 입구점 분점), 02-3479-603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에터 이자연



© sponsored by LANVIN SPORTS



HYUNDAI MAIN / HYUNDAI TRADE CENTER / HYUNDAI MOKDONG / HYUNDAI PANGYO / HYUNDAI DAEGU
LOTTE MAIN / LOTTE JAMSIL / SHINSEGAE GANGNAM WWW.THEHANDSOME.COM

LANVIN
SPORT

한리 무아의 작품 프레임드
헤드에서 영감을 받은
프린트가 인상적인 셔츠
64만원, 블랙 팬츠 94만원,
블랙 슈즈 1백20만원, 레더
벨트 35만원 모두 **바버리**.

SWEET LONELINESS

이른 봄의 스산함과 사막의 황량함이 주는 치명적인 매력. 그리고 그 낮선 분위기에서도 웬지 익숙한 묘한 느낌.
새로운 시즌에 선보이는 빅 하우스들의 남성을 위한 뉴 룩과 많이 닮았다.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앞티켓의 가든 프린트를 더한
재킷 2백67만원, 셔츠 95만원,
팬츠 1백14만원 모두 **렌다**.
블랙 스트랩 슬리이드 가격 미정
오다나리 퍼플.



패이즐리 패턴의 블루즈,
데이지 컬러 패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키키 컬러 재킷 2백만원대,
일사귀 패턴이 이국적인
무드를 자아내는 셔츠
1백50만원대 모두 토즈.



그래픽적인 패턴을 기이한 그린
컬러 니트 베스트, 일라스트
패턴의 화이트 셔츠, 브라운
체크 팬츠, 오렌지 컬러 벨트
모두 가격 미정, 스트림 센들
60만원대 모두 프리다.

여행 과정을 패턴으로 표현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재킷 3백32만원, 팬츠 1백64만원, 브라운 컬러 티셔츠 1백12만원, 핑크 벨벳 블로퍼 1백25만원 모두 구찌, 블랙 컬러 프레임 안경 19만8천원 트러디.



기하학적 패턴을 기미한 니트 룩, 넉넉한 라인의 레드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조르지오 아르마니.

핑크 스타일의 자수 장식을 더한 블랙 수트, 스트라이프 패턴 셔츠 모두 가격 미정 다음 글에.

모델 ROBBY DAVIDSON
헤어 메이크업 JENNY O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토즈 02-3438-6008
프라다 02-3442-1830
팬디 02-2056-9022
오디나리 피플 070-4411-2938
에르메스 02-544-7722
구찌 1577-1921
트리티 031-714-0907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9-3355
버버리 080-700-8800
다음 올무 02-513-0300

SIHH

27^e 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 GENÈVE
DU 16 AU 20 JANVIER 2017

최고급 시계 기술과 혁신적인 신소재라는 본연의 가치를 다시 찾는

all about 2017 SIHH

국가정책 변동이 잦은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하이엔드 워치 시장이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스위스 시계 산업은 유럽, 중동, 동아시아 등 전통적으로 로열티가 높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언제나처럼 잠시도 멈추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더하고 있다. 노벨상을 받은 연구진과 협업해 최신 과학기술을 시계에 도입하는 것은 물론, 우주의 움직임 그대로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손목 위에 표현한, 시계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까지, 시계 본연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리로 돌아간 2017 스위스 고급시계박람회(SIHH, The 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 현장을 제네바 현지에서 취재했다.

Cartier

까르띠에 팬더 컬렉션 & 드라이브 하이엔드 브랜드 중 선두에 서 있는 까르띠에가 올해 다시금 선보이는 컬렉션은 바로 팬더 드 까르띠에(Panthère de Cartier) 워치. 1980년대에 등장한 까르띠에의 아이코닉한 워치로 산토스의 클래식한 매력과 주얼리 워치의 아름다운 가치를 동시에 보여준다. 올해 SIHH를 통해 다시 생명을 부여받은 팬더 컬렉션은 2017년 까르띠에의 중심 컬렉션으로 스틸 워치부터 골드와 스틸 콤비,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로즈 골드, 블랙 레커로 팬더의 강렬한 패턴을 표현한 디자인까지 다양한 라인을 동시에 출시해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엔트리 라인의 스틸 소재 버전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실제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를 갖췄다. 배우 아, 발롱블루, 끌레로 이어지는 까르띠에의 아름답고 우아한 워치 라인 사이에서 가장 까르띠에적인, 클래식한 모습의 위치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2016년 출시해 돌풍을 일으킨 드라이브 드 까르띠에(Drive

de Cartier) 워치 역시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되었다. 스타 일러시한 남성용 워치로 포지셔닝해 지난해 대규모 행사를 이탈리아의 남성 패션 중심인 피렌체 피티위모가 개최된 콘디 궁전에서 개최할 정도로 기존의 까르띠에보다 더 젊고 에너제틱한 남성을 공략하는 컬렉션이다. 국내에서 유명 남성 배우와 컬래버레이션해 새로운 드라이브 컬렉션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론칭 초반에 시와 분, 초를 표시하는 기본 모델만 볼 수 있었다면, 올해는 세컨드 타임 존과 플라잉 투르비옹 모델까지 출시해 라인업을 더 강화했다. 남성 워치에서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된 문페이스를 더한 모델은 새로운 매뉴팩처 무브먼트 1907-IU MC를 장착해 신비로운 달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1백25년에 한 번만 조정하면 되는 정확성을 지녔다는 것이 더 놀라운 점이다. 더 얇고 가벼워진 엑스트라 플랫 모델도 매력적이다. 오리지널 모델이 비해 두께가 40% 축소되어 엑스트라 플랫 모델은 7mm 미만이라는 놀라운 실루엣을 자랑한다. 까르띠에 매뉴팩처의 매뉴얼 와인딩 와인딩 430MC 무브먼트를 장착한 엑스트라 플랫 워치는 핑크 골드 및 2백 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인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드라이브 드 까르띠에
문페이스



팬더 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팬더 드 까르띠에
옐로 골드



피아제 알티플라노 60주년 컬렉션



에거 르콜트르 아틀리에 리베르스



에거 르콜트르 랑데부 문 미디엄

Piaget

피아제 알티플라노 60주년 컬렉션 & 알티플라노 아트 오브 컬러 울트라 썬 위치의 상징이 된 피아제 알티플라노. 1957년 2mm에 불과한 초박형 무브먼트 9p는 첫선을 보이자마자 바젤 박람회를 뜨겁게 만들었고, 3년 뒤에는 피아제 창립자의 손자가 지름 2.3mm의 12P 울트라 썬 셀프와 인딩 시계를 선보이며 이 분야의 최강자임을 공고히 했다. 그리고 2017년, 탄생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버전의 새로운 얼굴로 태어났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얇은 두께와 간결한 디자인, 이를 완성하기 위한 놀라운 기술력으로 시계업계에서 인상적인 행보를 보인 브랜드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올해를 알티플라노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2017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정판 에디션은 다양하게 선보이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고귀한 컴플리케이션인 투르비용, 그리고 화려한 색을 담은 아트 오브 컬러다. 사실 알티플라노의 디자인은 담백하지만, 그 안에는 원형 코트 드 제네브(Côtes de Genève), 베벨링한 브리지, 원형 그레이 처리한 메인 플레이트와 블루 스크루 마감 등 시계학적으로 가치 높은 공법을 다양하게 담았다. 개발부터 마감까지 최고급 시계 공장에서만 가능한 까다로운 기준을 담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탑재했다는 것이 알티플라노의 가장 큰 매력이고, 이를 극대화한 것이 바로 최상의 기술력을 적용한 알티플라노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인 것. 4.6mm에 불과한 얇은 670P 울트라 썬 매카니컬 매뉴얼 와인딩 투르비용 무브먼트가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했다. 브랜드의 창조적인 영감을 담고 있는 아트 오브 컬러 컬렉션 역시 비비드한 색감과 신선한 감각을 찾아볼 수 있는 알티플라노 컬렉션의 미메다. 핑크 컬러와 그레이, 블루, 그린 총 네 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Jaeger-LeCoultre

에거 르콜트르 랑데부 문 미디엄 & 아틀리에 리베르스 지난 2012년 워치메이커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여성 워치로 완성한 랑데부 컬렉션,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물론 하이엔드 여성 워치 시장의 문을 활짝 연 상징적인 모델이 되었다. 올해는 차이밍 기능을 갖춘 하이 컴플리케이션 버전부터 옐로 골드 소재, 라지 사이즈 모델까지 다양하게 추가되었는데, 그중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모델은 문페이즈를 장착한 랑데부 문 미디엄 모델이다. 정교하게 기묘하게 패턴이 새겨진 문페이즈 디스크와 9백85년마다 단 한 번



피아제 알티플라노 아트 오브 컬러

만 조정하면 되는 문페이즈는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에거 르콜트르의 가치를 훌륭하게 담았다. 존재감 있는 36mm의 다이얼은 핑크 골드 소재로 제작해 더욱 여성스럽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리베르스 컬렉션도 업그레이드되었는데, 지난해 선보인, 5개의 다이얼을 새롭게 적용한 그랑 메종 컬렉션에 올해는 6개의 새로운 다이얼을 추가했다. 미묘한 레드 컬러와 일렉트릭 블루, 탄소섬유로 만든 그레이 컬러, 다채롭게 변형한 세 가지 남성적인 컬러를 도입한 것. 자신의 취향을 나만의 방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다면 아틀리에 리베르스 컬렉션이 좋은 팔레트가 되어줄 것이다. 평생을 함께하는 시계라는 측면에서도 소장 가치가 높은 아이템이다. 자신이 원하는 소재의 스트랩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부티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스트랩을 스스로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 활용도가 높다.

A. Lange & Söhne

랑에 온트 죄네 투르보그래프 퍼페추얼 푸르 르 메리트 & 자이트베르크 데시멜 스트라이크 랑에 온트 죄네는 SIHH 박람회에서도 시계 전문가들에게 가장 큰 기대와 흥분을 안겨주는 브랜드다. 독일 브랜드라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는 물론 1845년 드레스덴의 워치메이커 페르디난트 A. 랑에가 시작해 최근 타계한 창립자의 증손자 발터 랑에까지 이어지는 견고한 역사 속에서 항상 차별화된 시계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오직 골드와 플래티넘 등 고급 소재만으로 연간 수천 개만 만드는 브랜드이기에 희소까지, 소장 가치가 높다. 브랜드의 전설적인 컬렉션인 푸르 르 메리트(Pour le Mérite)에서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새로운 컬렉션인 투르보그래프 퍼페추얼 워치는 푸제 & 체인 트랜스미션과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 라트라블레, 퍼페추얼 캘린더를 결합한 놀라운 타임피스다. 독일 브랜드 특유의 엄격한 정밀함을 근간으로 탄생한 점핑 플레이트를 만나볼 수 있는 자이트베르크는 올해 데시멜 스트라이크 컬렉션으로 발전하며 놀라운 소리를 들려준다. 복잡한 쿼터 방식에서 벗어나 10분마다 울리는 소리로 시간을 알리는 새로운 방식의 스트라이크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1백 피스 한정 제작하는 모델은 이름까지 특별한 하니 골드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59개의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갖춘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품이다.



랑에 온트 죄네 자이트베르크 데시멜 스트라이크 수동 와인딩 칼리버 L 93.7

Vacheron Constantin

바쉐론 콘스탄틴 셀레스티아 에스트로노미컬 그랑드 소네리 1860 하나의 모델을 5년간 1명의 워치메이커 장인이 개발한다는 것은 바쉐론 콘스탄틴에게 가능한 일이다. 브랜드 탄생 2백60주년을 맞이해 탄생시킨, 57개의 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인 레퍼런스 57260의 업적을 이어, 셀레스티아 에스트로노미컬 그랑드 컴플리케이션 3600은 천문학에 대한 집념과 오레도록 이어진 노하우로 23개의 시계학적 컴플리케이션을 완성했다. 앞과 뒤, 양면에 장착한 트윈 다이얼은 이 수많은 기능을 담기 위한 독특한 방법으로, 각각의 기어 트레인으로 작동하는 세 가지 방식의 시간인 상용시, 태양시, 항성시를 확인할 수 있다. 5백14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이 작은 우주는 두께가 8.7mm에 불과하고 6개의 바늘을 통해 3주간 움직인다. 순수하고 간결하게 소리로 시간을 표현하는 레카비노티에 심포니아 그랑드 소네리 1860 역시 브랜드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델이다. 독창적인 안전장치를 통해 메커니즘 간의 예상치 못한 간섭을 방지하도록 설계한 무브먼트는 7백27개의 부품이 맞물려 1시간 및 15분이 경과할 때마다 소리로 시간을 알려준다. 그랑드 소네리와 프피드 소네리를 선택하는 스트라이크 모드 셀렉터는 베젤로 작동할 수 있고, 셀렉터와 연동하는 마닛 리미터는 크라운 푸시피스로 작동한다. 복잡하고 정교한 양방향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1860은 개발에 10년이 소요된 혁신적인 무브먼트다.

Montblanc

몽블랑 타임워커 크로노그래프 랠리 타이머 카운터 리미티드 에디션 100 & 타임워커 크로노그래프 1000 리미티드 에디션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분야와 컬래버레이션하며 풍부한 워치 컬렉션을 선보이는 몽블랑. 올해는 빈티지한 레이싱 스타일과 최상의 시간 측정 기술력을 보유한 전설적인 미네르바 매뉴팩처의 유산을 결합한 새로운 타임워커 컬렉션에 브랜드의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부스 중앙에 타임워커 1000 워치를 재현하는 것은 물론, 몽블랑 워치메이커들이 새로운 타임워커 타임피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시연하며 그 과정과 복잡성을 자세히 선보였다. 모든 모터 스포츠 중에서도 카레이싱에는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해왔는데, 몽블랑의 타임워커 컬렉션은 이러한 레이싱 정신을 상



몽블랑 타임워커 크로노그래프 1000 리미티드 에디션

정화한 시계다. 올해 가장 중요한 컬렉션인 몽블랑 타임워커 크로노그래프 랠리 타이머 카운터 리미티드 에디션 100은 로드 레이싱 기록을 위해 미네르바 매뉴팩처에서 제작한 랠리 타이머 스위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손목시계의 형태를 따지만 포켓 워치 혹은 자동차 대시 보드 워치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케이스 하단 스트랩 부착 장치를 회전하면 포켓 워치로 세팅 가능해 빈티지한 고유의 매력까지 즐길 수 있다. 매뉴얼 와인딩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매뉴팩처 칼리버 MB M16.29는 시간당 약 1만8천 회 진동하는 대형 스크루 밸런스 와 V 모양의 크로노그래프 브리지, 코트 드 제네브 스트라이프, 베벨링 마감까지 예술적인 장인의 손길을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다. 1916년 100/1조를 측정할 수 있는 스톱워치를 개발한 미네르바 매뉴팩처에서는 올해 이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1000/1조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타임워커 크로노그래프 1000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며 타임워커 컬렉션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이 찰나의 순간을 측정하기 위해 몽블랑 엔지니어들은 시간당 36만 회에 가까운 진동수로 작동하는 밸런스를 탑재한 무브먼트 몽블랑 매뉴팩처 칼리버 MB M66.26을 개발해 시계 공학에 한 획을 그었다. 2개의 특허, 22개의 예비 특허를 받았다는 것 역시 이 시계를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Audemars Piguet

오데마 피게 레이디 로얄 오크 프로스티드 골드 & 로열 오크 퍼페추얼 캘린더 프로스티드 골드는, 시각적으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상적인 기법의 워치를 새롭게 선보여 피니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브랜드의 가치를 다시금 빛낸 오데마 피게. 하얀 세라믹 내린 듯 입체적인 로열 오크의 표면은 전통적인 주얼리 세공 방법 중 하나인 플로랑틴(Florentine) 기술로 마감한 것. 끝에 다이아몬드가 달린 도구로 골드 소재의 표면을 수공으로 하나하나 두드려 자국을 만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 끝에 탄생한 기법이다. 보석을 세팅하지 않아도 보석만큼 화려하고 고귀한 가치를 담고 있다. 남성 시계 역시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었는데, 이미 1955년 세계 최초로 윤선이 포함된 18K 옐로 골드 퍼페추얼 캘린더 손목시계를 선보일 정도로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은 브랜드의 가치를 대변하는 모델이다. 올해는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 소재로 퍼페추얼 캘린더 라인을 완성해 온도와 열, 충격이 더욱 강해진 것이 장점이다. 로열 오크만의 독보적인 매력인 브레이슬릿은 유연성을 살리기 위해 세라믹을 사용해 완성하는 데 30시간이 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이얼에 대한, 실제 달 사진이 담긴 문페이즈 표시창은 블랙 컬러와 매조를 이루어 브랜드 고유의 강렬한 매력을 부각한다. 주간 표기와 날짜, 요일, 천체 달, 개월, 윤년, 시, 분을 표현하는 셀프와인딩 칼리버 5134를 장착했다.

Roger Dubuis

로저드뷔 엑스칼리버 스피더 카본 &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파블리 해를 거듭할수록 모험과 도전, 전투적인 느낌까지 드는 기술적인 시도를 아끼지 않는 로저드뷔.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영감의 원천이 되는 콜라보레이션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하는 로저드뷔를 대표하는 것은 엑스칼리버 모델이다. 올해도 엑스칼리버를 베이스로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는데, 기존의 틀을 깨는 소



바쉐론 콘스탄틴 셀레스티아 에스트로노미컬 그랑드 컴플리케이션 3600



바쉐론 콘스탄틴 레카비노티에 심포니아 그랑드 소네리 1860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퍼페추얼 캘린더



오데마 피게 레이디 로얄 오크 프로스티드 골드



로저드뷔 엑스칼리버 스피더 카본



로저드뷔 엑스칼리버 스피더 파블리



파네라이 LAB-ID™

재와 혁신적인 컴플리케이션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게 강렬한 레드 컬러의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카본을 28피스 한 정판으로 선보였다. 가볍고 견고한 카본 소재가 브랜드 고유의 스킵레톤 무브먼트와 만나 깃털처럼 가벼운, 놀라운 위치를 만들어냈다. 시간당 2만1천6백 번의 진동 속도로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아스트랄 스킵레톤 플라잉 투르비옹 무브먼트인 칼리버 RD509SQ는 이 시대의 가치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다. 세계 모터 스포츠 대회에 최고의 타이어를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인 피렐리와와 만남도 인상적이다. 실제 카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한 피렐리 인증 타이어 조각을 가져와 스트랩에도 입했다. 견고한 47mm 블랙 DLC 티타늄 스킵레톤 케이스에 그너쳐 블루 아스트랄 스킵레톤을 적용한 새로운 RD105SQ 수동 칼리버를 담아 화려하게 완성했다. 5시와 7시 방향에 위치한 플라잉 투르비옹은 속도계와 연료 게이지에서 영감을 받아 강렬하다. 오직 8피스 한정 생산했다.

RICHARD MILLE

리처드 밀 RM07-1 & RM037 NPTT & RM50-03 맥라렌 F1
 독특한 물결무늬로 독특한 매력을 선보인, 리처드 밀의 시그너처가 된 NPTT 카본 소재를 올해 브랜드를 대표하는 여성 모델인 RM07-01과 RM037에 적용해 하이엔드 여성 위치의 기술 요소를 새 장을 열었다. 더욱 대단한 것은 강도가 높고 가벼워서 소재 자체를 다루기 어려운 카본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는 것. 이를 세팅하기 위해 다이아몬드가 탑재된 특수 CNC 밀링 가공 기계가 필요할 만큼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인데, 시계 기술 발전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과 시간, 노력을 기울이는 리처드 밀인 만큼 확실하고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NPTT 카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 두 모델은 마치 일반적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듯 부드럽고 매끄러운 미감을 선보인다. 변형 불가능한 NPTT 카본, 여기에 더한 다이아몬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성의 품격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올해 리처드 밀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을 세계 최경량 스플릿 세컨즈 투르비옹 크로노그래프 TM50-03 모델을 맥라렌 F1과 함께 선보였다는 것이다. F1 머신 제조사와 만나 손에 올리자마자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라게 되는 울트라 라이트 위치가 탄생한 것. 스트랩까지 포함해 40g이 넘지 않는 이 모델은 현존하는 기계식 무브먼트 중 최경량인데, 맨체스터 대학에 설립된 국립 그래픽 연구소와 함께 완성한 그라프 TPT™를 사용해 타 브랜드에서 도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과제를 완수했다. 리처드 밀은 파트너사인 신소재 기업 NPTT® 컴퍼니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카본 TPT™를 완성하게 된 것. 강철보다 6배 가볍고 2백 배 단단한 혁신적인 나노 소재인 그라핀을 주입해 탄소의 물리적 속성을 개선했고, 이 개발은 곧 맥라렌-혼다의 1인승 단좌 자동차에 적용시키는 것까지 이어져 진정한 의미의 컬래버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단 75개 한정 판매한다.

리처드 밀 RM037 NPTT

IWC 다빈치 뉴 컬렉션 오토매틱 36



PANERAI

파네라이 LAB-ID™ & 루미노르 섬머저블 1950 BMG-테크™
 시계업계 최초로 탄소섬유 기반의 합성 소재인 카본테크를 소개한 파네라이가 올해는 2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카본 베이스의 합성 소재를 사용해 마찰을 최소화한 파네라이 LAB-ID™를 50점 한정으로 선보인다. 윤활유 없이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은 워터메이킹의 미래를 여는 혁신성을 지닌 모델로, 시계업계에서 중요한 소재로 도약하고 있는 탄소의 무한한 잠재성을 표현했다. 탄소 베이스 합성 소재로 만든 케이스, 탄소 나노 튜브로 코팅한 다이얼, 탄소 복합 소재의 기술적 특성을 위해 윤활유 문제까지 해결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위치인 것. 클래식한 브랜드의 외관은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기에 브랜드의 가치와 3일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P.3001/C 헨드와 인딩 칼리버를 통해 미래적인 가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올해 파네라이를 빛낸 또 하나의 모델은 아방가르드하고 빈티지한 매력을 원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파네라이 섬머저블 1950 BMG-테크™ 3 데이즈 오토매틱. 케이스 전체에 BMG-테크™ 소재를 사용했는데, 이 소재는 티타늄과 비슷해 보이지지만 원자 구조가 달라 부식에 강하고 강도가 높으며 초경량이라는 확실한 성능을 갖추었다. 전문적인 수중 작업에서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델은 파네라이의 역사를 계승한다. 최대 300m 방수, 잠수 시간을 측정하는 눈금이 새겨진 시계 반대 방향 회전 베젤, 슈퍼 루미노바를 도입한 확실한 발광 성능까지 이탈리아 해군을 위한 시계를 개발했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최신 방법으로 고스란히 담았다. 파네라이의 하이엔드 워치 매뉴팩처에서 전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한 무브먼트 P.9010 오토매틱 칼리버는 3일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IWC

IWC 다빈치 뉴 컬렉션 오토매틱 36 & 다빈치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매년 놀라운 신제품의 솟자와 비약적인 성장으로 하이엔드 워치 시장의 리더십을 쌓아나가는 IWC. 국내에서도 비즈니스맨을 위한 품격 있는 위치로 널리 알려졌다. 이번 SIHH에서는 남성 위치를 넘어 인상적인 여성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바로 완벽한 절매미를 선보이는 다빈치 뉴 컬렉션 여성 워치다. IWC는 주로 남성 시계를 선보이는 브랜드였지만, 3년 전부터 브랜드의 성장 배경이 넓어지고, 고객들의 꾸준한 요청에 의해 여성 시계 포트폴리오 오토매틱 37을 선보였고, 지난해에는 스포티함을 강조한 파일럿 오토매틱 36을 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우아함과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매력을 담은 다빈치 오토매틱 36을 선보여 여성 시계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천재 미술가이자 조각가, 수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으로 1980년대에 이미 출시한 적이 있으나, 케이스를 보다 모던하게 리디자인하고 큰 아라비아숫자와 아름다운 핸즈를 더해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대형 브랜드답게 올해도 다양한 레퍼런스 모델의 중심이 되는 컬렉션이기에 기본형 컬렉션은 물론 IWC 자체 제작 기술력을 담은 남성용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와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더 크로노그래프까지 새롭게 더해졌다.



IWC 다빈치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 아펠 레이디 아펠 뱀뱀 오트메이트 워치 & 오트메이트 페 웅딘
 매혹적인 자연, 요정,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로 가득찬 반클리프 아펠은 최고급 시계가 즐비한 SIHH에서도 남다른 꿈을 펼치는 독보적인 존재다. 올해 역시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지닌 시간의 대서사시(Poetry of Time™)라는 본연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은 레이디 아펠 뱀뱀 오트메이트 워치를 선보였다. 착용한 사람의 움직임에 맞추어 불규칙적으로 날개를 펼치는 버터플라이는 스위스 메랭(Meyrin)에 위치한 반클리프 아펠 워치메이킹 워크숍에서 전통 기법을 통해 제작된다. 이 아름다운 날갯짓을 완성하기 위해 플라카주르 에나멜, 샹르베에 나멜, 파오네 에나멜 등 최근에는 보기 어려운 까다로운 에나멜 기법으로 완성했고, 나비의 움직임은 나비와 연결된 푸시 버튼을 통해 브랜드에서 독점적으로 개발한 랜덤 오토마톤과 온다넬드 에니메이션 모듈을 장착한 셀프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이 움직임은 반클리프 아펠의 4대 특허 출원 대상으로, 타 브랜드에서 만드는 무브먼트와는 확연히 다른 유니크함을 추구한다. 이러한 기계적 복잡성과 전통 기법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드러머틱한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은 엑스트라오디네리 오브제인 오트메이트 페 웅딘. 오랜 기간 동안 오토마톤 메이커인 프랑수아 주노와 이루어진 협업의 결실로, 아름답



반클리프 아펠 레이디 아펠 뱀뱀 오트메이트 워치

게 몸을 움직이는 잠에서 깨어난 요정과 물결치는 듯한 수련화 잎을 통해 매종의 상상력과 독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트메이트 페 웅딘의 윗부분을 구성하는 수련화 잎은 60여 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동하기 시작하면 잎이 유연하게 움직인다. 그린 에나멜의 그라데이션으로 잎맥을 섬세하게 표현고, 다이아몬드와 핑크 사파이어로 이루어진 작은 꽃과 어린 연꽃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다. 이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장인들과의 교감, 브랜드 CEO의 인터뷰를 SIHH 박람회에서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소개했는데, 이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만 가능한 가치 투자기에 더욱 감동적이다.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오브제로, 반클리프 아펠 홈페이지에서 이 오트메이트 페 웅딘의 움직임과 경이로운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트메이트 페 웅딘의 구조



Van Cleef & Arpels The Poetry of Time

SPECIAL INTERVIEW_ Chabi Nouri (피아제 글로벌 CEO)

"언제나 완벽, 그 이상을 추구하다"는 피아제의 모토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CEO 차비 누리(Chabi Nouri).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서 피아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들어봤다.



01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피아제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국가는 어느 곳인지? 한국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지? 그리고 최근 성장하는, 주목하는 시장이 어디인지? 아시아 마켓이다. 물론 현재 잠재력을 겪고 있지만, 아시아 마켓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피아제의 풍부한 역사를 함께해온 다이아몬드 아카데미 체어(Richmont Academic Chair)를 설립했으며, 2017년에 피아제 과학상(Piaget Scientific Prize)을 창설하는 이유다. 피아제 과학상은 특히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선보이면서도 소형화 분야에서 기술적 진보를 이룩한 후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로잔 공과대학교의 협력으로 시작된 이 대회는 지난 2년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명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며, 상으로는 로잔 공과대학 연구실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1년간의 박사 후 과정 장학금이 주어진다. 또 2018년 1월 SIHH에서 공식적으로 트로피 수여식을 기지 예정이다.

02 피아제 워치 워치는 기존 브랜드의 타깃 고객보다 연령대가 좀 더 낮은 고객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소비자에게 기계식 시계를 어필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마케팅 전략인지? 젊은 소비자는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이고,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피아제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시장의 흐름에 맞춰 스틸 워치를 개발하는 것은 피아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는 로컬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기도 알맞은 선택이다.

03 이번 SIHH에서 선보인 신제품 워치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피아제의 새로운 투르비옹 알티플라노 제품을 추천하고 싶다. 알티플라노 역사상 첫선을 보이는 이 투르비옹 시계는 최상의 울트라 씬 기계식 무브먼트와 하이 주얼리 전문 기술 노하우 모두를 보여주는 제품이다. 또 이트 & 액셀런스로 새롭게 태어난 2개의 알티플라노 제품은 가히 예술 작품이라고 칭할 수 있다. 페다이트 장인과의 합작으로 탄생한 대담한 디자인의 알티플라노 페다 마케티와 골드 레이스 알브로이더리 기반으로 성세하게 세련한 하이 주얼리 골드 레이스워치 컷 워치는 특별한 소재와 뛰어난 기술, 그리고 창의성으로 피아제 스타일을 함축하고 있다.

04 울트라 씬 무브먼트와 같은 기계적인 요소의 워치는 더 이상 발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준다. 올해도 더 업그레이드된 울트라 씬 무브먼트 워치를 선보였는데, 더 높은 기계적인 완성도의 시계를 소비자들에게 구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나 완벽, 그 이상을 추구하다라는 모토 아래 피아제는 항상 완벽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

다. 혁신은 피아제와 뗄 수 없는 것이다. 피아제의 고객은 1203P 무브먼트의 향상된 리오인딩 로터까지 알아보는 전문 감정사다. 뿐만 아니라, 알티플라노 9000의 론칭으로 증명되었듯이, R & D 부서는 항상 피아제의 핵심 부서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잔 공과대학(EPFL) 내 리치몬드 아카데미 체어(Richmont Academic Chair)를 설립했으며, 2017년에 피아제 과학상(Piaget Scientific Prize)을 창설하는 이유다. 피아제 과학상은 특히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선보이면서도 소형화 분야에서 기술적 진보를 이룩한 후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로잔 공과대학교의 협력으로 시작된 이 대회는 지난 2년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명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며, 상으로는 로잔 공과대학 연구실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1년간의 박사 후 과정 장학금이 주어진다. 또 2018년 1월 SIHH에서 공식적으로 트로피 수여식을 기지 예정이다.

05 피아제는 주얼리 워치 분야에서도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 하이 주얼리 워치 분야에서 피아제의 특별한 무언이 있는지? 피아제는 오프 호르토펠(Haute Horlogerie)와 오프 조이예(Haute Joaillerie)의 두 영역을 결합한 최초의 브랜드 중 하나다. 주얼리 리모드 적용할 수 있는 시리와 반대로 시계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얼리를 창조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 하이 주얼리 워치로 브랜드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교한 절 세팅 기술과 골드 크래프팅 기술, 그리고 갖가지 보석과 하드 스톤을 세팅해도 세련된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는 울트라 씬 무브먼트 제조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최상급 소재와 최고로 숙련된 전문 기술이 만나 고귀한 피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SIHH에서 선보인 57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알티플라노 투르비옹 하이 주얼리 하이 주얼리 분야에서 피아제의 높은 기술력을 잘 보여준다. 케이스의 측면뿐만 아니라 케이스 백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는데, 여기서 뛰어난 기술적 기교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브랜드의 끝없는 창조성과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은 보여주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세니 사이드 오브 라이프(Sunny Side of Life)와 같이, 피아제는 매년 두 가지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워치와 주얼리 제품 모두를 선보이고 있다. 에디트 베미(제네바 현지 취재



피아제 알티플라노 60주년 컬렉션을 위한 새로운 로고

알티플라노 투르비옹 하이 주얼리

an haut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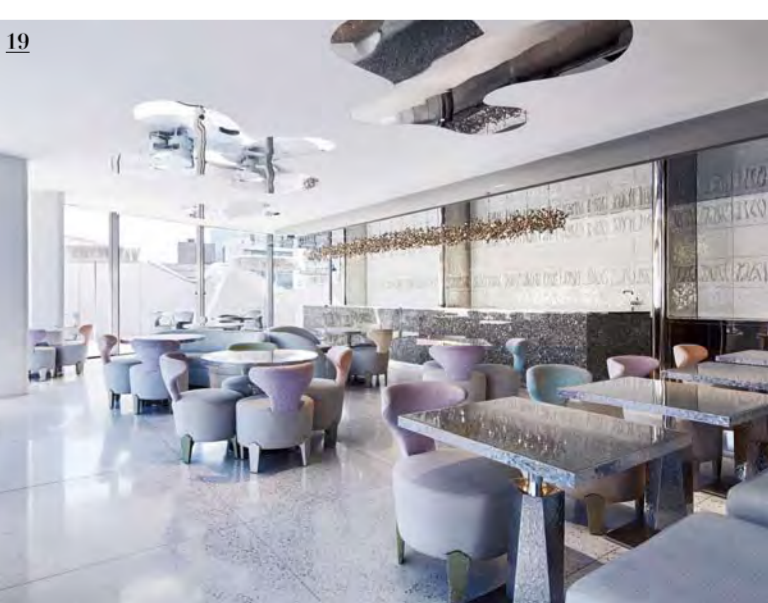
하이엔드 패션의 메카인 청담동 중심에는 드레스의 끝자락처럼 유연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하얀색 건물, 하우스 오브 디올이 있다. 건축가 크리스찬 드 포르장파르크가 설계한 건축물만으로도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이 하우스에 들어서면 오감, 그 이상을 만족시키는 예술적인 공간과 경험이 눈앞에 펼쳐진다.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뉴 컬렉션으로 단장한 여성 RTW 공간부터 올해 새롭게 론칭한 디올 매종 컬렉션까지, 치원이 다른 서비스와 쇼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photographed by koo eun mi*



오감, 그 이상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다
 2015년, 디올이 4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서울 청담동에 대대적으로 오픈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 하우스 오브 디올(House of Dior).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곳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올의 하우스이자 트렌디한 패션 피플의 성지로 성공적인 입지를 다졌다. 총 6층으로 이루어진 하우스 오브 디올의 내부는 스타 디자이너 피터 마리 노가 완성한 인테리어와 함께, 디올의 우아하고 세련된 DNA가 소용 하나하나에 모두 녹아들어 디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 지하 1층에는 남성성을 위한 디올 올드 부티크와 오로지 남성 VIP만을 위한 바 & 라운지, 1층과 3층에는 디올 최초의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여성 백 & 슈즈 존과 액세서리를 총망라한 여성 RTW 컬렉션 존이, 2층에는 디올 파인 주얼리 & 워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4층에는 최근에 론칭한 디올 매종 컬렉션과 포아비팅한 쇼핑을 할 수 있는 VIP 라운지, 마지막으로 5층에는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디올 카페가 자리해, 원스톱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쇼핑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이 더욱 특별한 것은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재미를 준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하우스 오브 디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상층과 벽면에 커튼처럼 드리운 흰색 메탈 구조물은 아시아 대표 여성 아티스트 중 하나인 한국 작가 이불의 작품으로, 오로지 이 공간을 위해 특별 제작한 아트피스다. 우아한 유선형 디자인의 계단을 따라 이어지는 벽면에서는 비디오 아티스트 오요림이 제작한 미디어 아트 월을 감상할 수 있고, 프랑스 조각가 클로드 람란이 만든 나뭇가지와 잎을 형상화한 벤치, 브라질 듀오 디자이너 페르난도 & 울베르토 캄파의 작품인 머리 글라스 사원장 등 많은 아트피스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에 걸쳐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마치 숨은 보물을 찾듯 작품을 발견하는 재미를 준다. 더불어 샴페인을 즐기며 특별한 사교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올 올드 VIP 라운지와 베르사유의 궁정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한 아주 우아하고 독립된 공간인 VIP 전용 라운지는 디올의 철학과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 번 이곳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디올 마니어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매종 컬렉션을 바로 이곳, 4층에 구성한 것. 그간 5층의 카페 디올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디올 시가를 포함해 글라스 디자이너 제레미 맥스웰 윈트르버트, 아티스트 베로니카 테팅거, 건축가 안디아 마흐다비 등 업계 최고의 정인과 아티스트, 공예가와 협업해 완성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리빙 제품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디올을 사랑하는 마니아는 물론 트렌디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이들이라면 이곳은 충분히 방문해볼 만한 가치와 매력에 있는 디올의 정수다. 문의 02-513-0300 에디터 권유진, 이자현



1 세계적인 건축가 크리스찬 드 포르장파르크가 설계한 하우스 오브 디올 청담의 모습. 2 의상부터, 슈즈, 백, 액세서리까지 오롯이 남성만을 위한 디올 올드 부티크. 3 2017 S/S 디올 올드의 리웨이 영상과 함께 눈길을 사로잡는 미디어 아트 디스플레이. 4 하우스 오브 디올의 1층, 한국 여성 아티스트 이불이 만든 상층과 벽에 붙어 있다. 5, 6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디자인한 첫 번째 디올 컬렉션인 2017 S/S 컬렉션 런웨이 셋. 7 특별한 이그노프 레더로 디자인한 시그니처 백인 블랙. 8 1층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계단 벽면에는 비디오 아티스트 오요림이 제작한 미디어 아트를 설치했다. 9, 10 디올의 새로운 로고, 자디올(J'ADIOR)로 장식한 빈티지 백. 11 디올 2017 봄 여름 시즌을 위한 팝업 스페셜 디스플레이. 12 2층의 파인 주얼리 존. 13 디올 부티크 3층에 위치한 슈즈 상층. 미국 작가 레일라 홀브루안이 생생하게 만든 꽃 벽면이 보인다. 14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디올 매종 컬렉션이 하우스 오브 디올 청담 4층에 자리 잡았다. 15 프랑스 디자이너 윌베르 르 캉이 디올 매종을 위해 제작한 점시. 16 아티스트 베로니카 테팅거가 디자인한, 캐주얼 패턴을 입은 점시. 17 자베르토 아르비베리의 화병과 컵. 18 디올 쿠티르 2017 S/S 시즌 RTW 컬렉션과 슈즈, 가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3층. 19 5층 루프에 위치한 카페 디올.





(왼쪽부터 시계 방향) 클래식하고 우아한 곡선 라인과 현대적인 직선 라인이 조화를 이룬 살버 라이터. 라이터를 찾을 때 나는 신비로운 '종' 소리의 공명감은 라이터 마니아를 설레게 할 것. 1백29만원 **S.T. 유포**. 화이트 칼라의 기묘세 디자인, 그 위에 장식한 몽블랑 스타 패턴. 그리고 레드 소재 로이슈자가 우아한 조화를 이루는 4810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워치. 몽블랑의 DNA를 느낄 수 있는 클래식한 워치 디자인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더한 에디션이다. 5백70만원 **몽블랑**. 곱금부분의 상징적인 블루 라인 카보숑 장식이 돋보이는 로드스터 만년필. 완벽한 비율의 보드와 캡, 골드 마감 디테일과 함께 부드러운 18K 골드 핏축이 품격을 더한다. 80만원대 **까르띠에**.



(왼쪽부터 시계 방향) 1815년 루이 18세가 프랑스 해군의 크로노미터 제작자로 이브라함 루이 브리게를 이끌던 지 2백 년이 된 것을 기념해 선보이는 마린 크로노그래프 5823 워치.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라네스 스텔알과 에트나 블랙 컬러의 골드 소재 디자인에서 강렬한 인지도 역동적인 무드가 느껴진다. 6천7만1천원대 **브리게**. 주얼리를 방목케 하는 까르띠에 파인 오브제 컬렉션 중 하나인 스페이 트레세 데오 라이터. 골드 비취뿔 목걸이면서 손에 착 감기는 매끄러운 매달림이다. 1백40만원대 **까르띠에**. 브랜드 고유의 오토매틱인 다이아몬드 헤드 패턴을 재해석한 라인 D 파이어 헤드 만년필 1백29만원 **S.T. 유포**. 천연 오탁스를 카보숑 컵으로 디자인해 영물림 모티브를 연상한 카보숑 카프스 링크 66만원 **몽블랑**. 화이트 셔츠, 블루 패턴 넥타이, 디크 그레이 슈트 모두 **에르메네제르도** **제나**.

good Luxe

어느 수집가의 특별하고 클래식한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조금은 사치스럽지만 수집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품은 럭셔리 브랜드의 스페셜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아이디얼 이미지, 김수민
메이크업 박영희



(왼쪽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2천18개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씨아스티 플래닛오션 평창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태극기를 상징하는 선명한 블루와 레드 컬러의 조화가 포인트다. 케이스 백에는 평창 올림픽 엠블럼과 로고를 새겨 표현했다. 8백만원대 **오메가**. 제품 1개가 판매될 때마다 1천원 씩 1천유로가 기부되는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 까르띠에 배럴즈 비티스카프 블랙이벤 크로노 그래프 오서 카미트먼트 1 워치. 브랜드 최초로 전체 케이스를 블루 사파이어로 선보인 더욱 특별한 시계다. 32만6천 원의 전동수를 자랑하는 P386 루브러먼트를 탑재했다. 2천3백73만원 **몽블랑**. 블루 패턴이 **에르메네제르도** **제나**.



(왼쪽부터 시계 방향) 세인스피어의 대표작인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출판된 해인 1597년을 기념해 단 1천5백97점만 한정판으로 제작한 세인스피어 리미티드 에디션 1597 만년필. 당시 극장 2층에서 영감을 받은 블랙과 레드 컬러의 레인지 룩이며, 베젤에는 깃털 펜을 연상시키는 생생한 기묘세 패턴을, 캡과 보드의 골드 링에는 세인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모티브를 새겨 장교함을 더했다. 9백16만원 **몽블랑**. 아시아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RM011 아시아 에디션 워치. 상징적인 투너형 케이스, 스켈레톤 처리된 블루 컬러 다이얼, 베젤에 출몰하고 화려하게 새겨진 다이아몬드 장식이 드러난다. 가격 미정 **리차드 밀**. 까르띠에의 새로운 아이콘인 골드 드 까르띠에 워치를 상징하는 독특한 크라운에서 모티브를 얻은 골드 드 까르띠에 카프스 링크 70만원대 **까르띠에**. 파스텔 블루 컬러 노트 **스미스슨**. 에디터 **관유진**

몽블랑 1670-4810 **리차드 밀** 02-2230-1288 **까르띠에** 1566-7277 **브리게** 02-6905-3571 **S.T. 유포** 02-2106-3577 **오메가** 02-511-5797 **블랑팡** 02-6906-3367 **스미스슨** 02-310-1708 **에르메네제르도 제나** 02-518-0285



콜린 피스



브리짓트 바르도



크리스탈



오드리 햅번



로렌 하튼



조지 클루니



Timeless Icons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토즈(TOD'S)가 3월 29일, 서울 모스 스튜디오에서 (타임리스 아이콘) 사진집 출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변치 않는 매력을 지닌 클래식한 배우와 토즈의 만남
토즈의 시작은 디에고 델라 발레(Diego Della Valle)의 조부 필리포(Filippo)가 1900년대 초 이탈리아 마르케 주 카세트 데테(Cassette D'Este)에 세운 작은 구두 공장을 일구는 3대의 백여 년에 이르는 역사에서 비롯된다. 1970년대 디에고 델라 발레는 가업을 확장, 폴드 메이드 제조 공정을 고집하며 오늘날 스타일 아이콘으로 라포르에 아이콘이 된, 완벽한 품질을 지향하는 슈즈와 가죽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토즈만의 개성과 탁월한 퀄리티를 담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함을 보여주는 타임리스 아이콘은 토즈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여실히 드러내며, 도쿄와 밀라노에서 각각 진행된 프리뷰 전시에 이어, 사진집 출간에 맞춰 개최하는 한국 전시를 통해 토즈가 추구하는 가치와 더불어 한국 패션계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제인 버킨(Jane Birkin), 브리짓트 바르도(Brigitte Bardot),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부터 스티브 맥퀸(Steve McQueen),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 콜린 피스(Colin Firth)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며 자신들만의 트렌드를 창조해나가는 타임리스 아이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에서는 이렇듯 과 크리스토알이 선정되어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타임리스 아이콘의 반열에 올랐다. 이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가 강조하는 가치이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아이콘들의 이미지를 한데 모은 사진집 출간과 그 전시를 통해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아이콘들에게 한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서울 전시에서 선보이는 타임리스 아이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아이콘의 이미지를 풍성하게 엮어낸 타임리스 아이콘 사진집은 엘렉트라(Electra)에서 출간했으며, Mick Jagger)와 브리짓트 바르도가 각각 남녀 커버를 장식했다. 1백6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 이번 하드커버 사진집은 미국의 빈스앤드노블, 파리의 콜레트 등에서 동시에 판매 될 예정이다. 문의 02-3448-8105



이병헌



Electra

© sponsored by TOD'S

another day of LA LA Land



이곳이 '천사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매릴린 먼로와 제임스 딘이 사랑한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문화 도시임에도, 뉴욕에 비해 저평가되어 아쉽다. 로스앤젤레스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현대미술과 미식의 새로운 메카이기도 하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것은 단지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곳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별들의 도시여, 당신은 나만을 위해 빛나는 것인가요? 별들의 도시여, 그녀는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는데요.”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 중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는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를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영화 <라라랜드>는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영화는 로스앤젤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에서 촬영되었다. 먼저 영화 포스터 촬영지이자 남녀 주인공(엠마 스톤, 라이언 고슬링)이 처음 함께 노래하는 곳은 마운틴 할리우드 드라이브(Mt. Hollywood Drive)다. 우울한 첫 만남 이후 대저택의 파티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뮤지컬 영화답게 탭댄스를 추면서 노래하는데, 멀리 보이는 노을 속 도시 전경이 환상적이다. 영화 속 주요 장면에는 두 사람이 이별하는 신을 제외하고는 매년 노을이 등장한다. 로스앤젤레스는 광활하고 자연이 깨끗해, 매일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그리피스 천문대(Griffith Observatory)도 영화 속에 등장했다. 리알토 극장에서 첫 번째 테이트를 하며 영화 <이웃 없는 반항>을 보던 두 사람은 그리피스 천문대가 나오는 장면에서 영사기가 멈추자 직접 그곳으로 달려간다. 천문대의 별빛 아래서 노래하며 꿈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연인의 모습이 미소 짓게 한다. 마운틴 할리우드 드라이브와 그리피스 천문대는 모두 그리피스 공원(Griffith Park)에 있다. 두 주인공이 키스하며 타는 트롤리는 앤젤스 플라이트(Angels Flight)인데, 언덕 아래 있는 그랜드 센트럴 마켓(Grand Central Market)을 편하게 오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케이블카다. 아쉽게도 보수 공사로 몇 년째 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랜드 센트럴 마켓은 올해 설립 1백 주년을 맞았으며,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브런치를 먹으러 가기 좋다. 첫 테이트를 기대하며 라이언 고슬링이 춤추고 노래하는 허모사 비치 피어(Hermosa Beach Pier)도 인상적이다. 사실 로스앤젤레스는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다. 여행지는 도심에서 관망하느라 바다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다운타운에서 30분만 달리면 낭만적인 해변이 펼쳐진다. 허모사 비치는 매년 비치 발리볼 대회가 열리는 곳이며, 해안백사장과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다.(www.discoverlosangeles.com)



노을과 바다를 보지 않고 로스앤젤레스를 말하지 마라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에는 유명한 해변이 많다. 다운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샌타모니카 비치(Santa Monica Beach)는 놀이동산 퍼시픽 파크(Pacific Park)에서 쇼핑 거리 '서드 스트리트 프롬나드(Third Street Promenade)'까지 두루 갖추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겨 찾는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사는 말리부 비치(Malibu's Beaches)는 우아하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태평양을 따라 32마일(51km) 이상 이어진 해변은 드 라이브하키에 좋다. 서프라이더 비치(Surf Rider Beach)는 서핑으로 유명하며, 북쪽에서는 겨울에 화색과래를 볼 수 있기도 하다. 스케이트 파크가 있어 10대가 즐겨 찾는 베니스 비치(Venice Beach)와 고급 부티크, 레스토랑이 밀집된 맨해튼 비치(Manhattan Beach)도 인기 있다. 마리나 델 레이(Marina del Rey)는 요트들이 정박된 평화로운 항구 마을인데, 이곳에서는 크루즈를 탈 수도 있다. 마리나 델 레이 허버 투어는 노을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마실 수 있는 프로그램. 배 위에서 바다사자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생일 파티나 프리포즈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면 배를 통째로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샴페인 브런치 크루즈', '다이닝 크루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www.hornblower.com) 산페드로(San Pedro)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샌타 카탈리나 섬(Santa Catalina Island)도 놓치면 후회할 명소다. 카탈리나 익스프레스 여객선으로 1시간 혹은 헬리콥터로 15분 걸리며, 매릴린 먼로도 한때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슴이 여유롭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60여 종 이상의 동식물과 곤충, 샌타 카탈리나 섬 여우와 같은 희귀 동물도 있다. 대도시와는 전혀 다른 한가로운 이 섬의 낭만을 만끽하기에는 하루도 부족할지 모른다. 가이드의 안내를 들으며, 아발론 캐니언 트레일 투어(Avalon Canyon Trail Tour)로 섬 중앙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것도 좋다. 다섯 번의 스티를 경험할 수 있는 zip 라인 에코 투어(Zip Line Eco Tour)와 잠수함, 파라세일링, 골프 등의 액티비티도 이곳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www.visitcatalinaisland.com)

할리우드 스타일의 액티비티를 즐기다
햇살 따뜻한 로스앤젤레스는 아웃도어 액티비티의 천국이기도 하다. 레오나르도 디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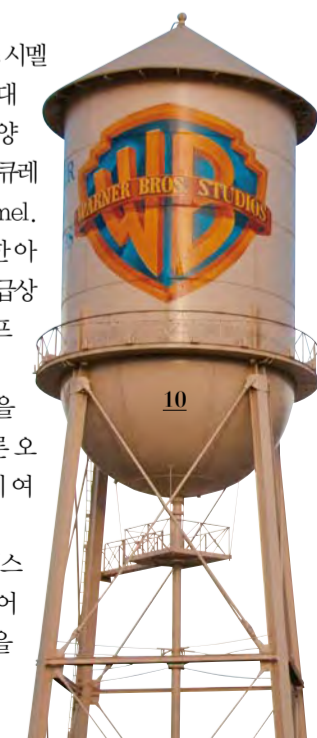
1 OUE 스카이스케이프에서 바라본, 무지개가 뜬 로스앤젤레스의 전경. 2 매릴린 먼로가 살았던 아름다운 샌타 카탈리나 섬. 3, 7 아트 디스트릭트 곳곳에서는 세퍼드 패러디, 크래시, 빅 워커, 메그제니 등 유명 그리퍼티 작가들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다. 아트 가이드 투어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리퍼티 가문의 갤러리를 오가는 산책이 꽤 흥미로운 것. 4, 5 맥인강사 브로드 부부가 오픈한 더 브로드 미술관과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6 다운타운의 로스앤젤레스 시아트. 8 할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사는 말리부 비치. 9 그리피스 파크에 설치된 '할리우드' 사인인 로스앤젤레스의 랜드마크이다. 10 <라라랜드>의 여주인공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장면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



리오가 이 도시에서 자전거를 즐겨 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행자라면 자전거를 대여하는 것도 추천한다. 최근 유행을 선도하는 거리로 알려진 애벗 키니 블라바드(Abbot Kinney Boulevard)는 특히 자전거로 둘러보기 좋다. 핸드메이드 가구점, 독특한 패션 부티크, 앤티크 숍, 현대미술 상점 등을 구경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베니스 운하까지 달려보는 것은 어떨까? 베니스 운하 역사 지구(Venice Canal Historic District)에서 오두막집이나 꽃이 만발한 정원을 둘러보며 산책할 수 있다.(http://bikesandhikesla.com) 그리피스 파크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리피스 파크는 하이킹 코스와 숲, 계곡, 동굴, 2개의 골프장, 동물원과 식물원까지 갖춘,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심 공원이다. 로스앤젤레스의 랜드마크인 '할리우드(HOLLYWOOD)' 사인은 그리피스 파크 안 리 마운틴(Mt. Lee) 남쪽에 설치되어 있다. 53마일(82km)에 달하는 하이킹 코스에 도전하거나, 1924년에 만든 베렌도 계단(Berendo Stairs)의 1백81개 계단을 오르면 건강도 좋아질 것. '산셋 랜치 할리우드(Sunset Ranch Hollywood)'에서는 말을 타고 그리피스 천문대까지 이동하는 프로그램도 매력적이다.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 할리우드에 말과 달이 노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잘 훈련된 말은 승마 초보자에게도 안심맞춤이다.(www.sunsetranchhollywood.com) 말리부 와인 사파리(Malibu Wine Safaris)는 지프를 타고 와이너리를 달리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여행자들은 중간중간 차에서 내려 기린과 라마, 얼룩말과 버펄로에게 당근과 로메인 상추를 주고, 와인을 테이스팅한다. 와인 사파리의 기린은 할리우드 영화와 광고에 단골 출연하는 동물 스타다.

뉴욕을 위협하는 새로운 현대미술의 메카

최근 로스앤젤레스가 현대미술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고급 주택지가 밀집된 웨스트 사이드에만 3백 개의 뮤지엄이 있다. 뮤지엄 로(Museum Row)로 불리는 미라클 마일(Miracle Mile)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라브레아 타르 피트 페이지 박물관(Page Museum at La Brea Tar Pits), 크래프트 & 포크 아트 박물관(Craft and Folk Art Museum)과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Petersen Automotive Museum) 등 주요 박물관이 모여 있다.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은 22개의 새로운 갤러리를 공개하며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쳤다. 1백50여 대의 희귀·클래식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전시품이 4개 층에 걸쳐 전시되어 있으며, '영화 속 자동차와 자동차 아트' 코너가 하이라이트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은 현대자동차가 10년간 후원하는 미술관이기도 하다. 현대미술뿐 아니라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미술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름이 비슷한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MOCA)은 우리나라 아라리오 뮤지엄의 김창일 회장에 뮤지엄 설립의 꿈을 심어준 서부 대표 미술관이다. 이국적인 도시 풍광과 어우러진 게티 센터(Getty Center)와 게티 빌라(Getty Villa)도 빼놓을 수 없다. 말리부에 있는 게티 빌라에는 1천2백 점의 그리스, 로마, 에트루리아-유클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다. 고대 이탈리아 시대의 빌라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수려하다. 인근 샌타모니카 산꼭대기에 있는 게티 센터는 그리스, 로마 미술부터 중세, 근대, 현대미술까지 컬렉션이 다채롭다.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기하학적인 건축물과 폭포가 있는 센트럴 가든은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근대 개관한 두 곳, 더 브로드(The Broad) 미술관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큰 갤러리로 하우저 위스 & 시멜(Hauser Wirth & Schimmel)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더 브로드는 컬렉션 2천 점을 보유한 백만장자 일라이 & 에디스 브로드 부부가 개관한 미술관이다. 위치 또한 명당인데, 그랜드 애비뉴의 윌트 디즈니 콘서트홀 바로 옆이자 MOCA 길 건너에 들어섰다.(www.thebroad.org) 다운타운 아트 디스트릭트(Arts District)에 문을 연 하우저 위스 & 시멜 갤러리는 19세기 재분소를 갤러리로 레노베이션했다. 아름다운 근대 건축물에는 전시 공간뿐 아니라 정원, 레스토랑, 아트 숍, 심지어 양계장까지 있다. 스위스 갤러리 하우저 & 위스와 MOCA의 전 수석 큐레이터 폴 시멜이 함께 만든 갤러리다.(www.hauserwirthschimmel.com) 다운타운 동쪽의 리틀 도쿄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아트 디스트릭트는 최근 고급 주거지와 쇼핑센터가 들어서며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공장과 창고로 쓰였던 건물들이 세련된 디자인의 로프트와 콘도로 재탄생하고 있어, 부동산 회사에서 주목한다. 지난해부터 싱가포르항공이 인천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는 직항을 주 7회 개설해 여행이 한결 수월해졌다. 싱가포르항공 노선은 이른 오전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고, 늦은 오후 인천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윌틈 일정을 짤 수 있다.(www.singaporeair.com) '라라랜드'는 '꿈의 나라, 비현실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로스앤젤레스의 별칭이다. 복잡한 일상을 잊고, 꿈의 나라 LA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이 낭만적인 도시에서라면 당신도 잠시나마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문의 캘리포니아관광청(www.visitcalifornia.co.kr)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 카페 홀더) 자라



editor's Pick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는, 핑크빛으로 물든 뷰티 신제품을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직접 체험했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랑 라쁘띠 로브 노르의 립 & 체크 틴트** 네일 에나멜을 연상시키는 파카지와 브러시, 촉촉한 젤 타입 액상 제형으로 다소 사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외외로 씩씩 타치한 후 손으로 두들겨 흡수시키면 하얀 먼 듯이 자연스레고 아이라이팅 핑크빛 입술과 치미를 아주 쉽게 연출할 수 있다. 8.5ml 4만2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권유진*

베네프트 갈리포니아(GALIFORNIA) 귀여운 팜 알라스토가 그려진 파카지부터 눈 길을 준다. 베네프트의 고향, 캘리포니아의 따사로운 햇살을 담은 핑크 코랄 컬러서로, 피부 톤이 밝은 여성들 애용 파카지가 같은 편인 에디터에게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컬러다. 작은 사이즈와 케이스 안에 부착된 거울, 내장된 브러시로 휴대성을 높였다. 5g 4만2천원. 문의 080-001-2363. *by 에디터 이지현*

디올 에디트 라커 스틱 디올 최초의 스틱 타입 립 라커로, 입술에 닿자마자 미끄러져듯 녹아드는 립글로스 텍스처에 틴트 같은 선명한 발색력을 자랑한다. 올트라-라이트 나일론 오일을 함유해 건조한 입술에 따른 탈립으로 케어하지 않고, 그 위에 에버 빌라드 촉촉한 것이 장점. 미니 백 안에 이 립스틱 하나만 넣어 가지고 다녀도 든든할 듯. 3.2g 4만2천원. 문의 02-3438-9537. *by 에디터 이지현*

샤세이도 루센트 올 데이 브라이트너 가장 스킨케어에 미친 후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 진주 투 알민공의 양을 손끝으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비르면 하루 종일 빛나는 피부 톤을 유지할 수 있다. 낮 전용 하이틴닝 모이스처라이저로, 촉촉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안티폴루션 기능까지 갖춘 진정한 올인원 제품. 50ml 7만5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지현*

다이스 슈퍼스킨 헤어 드라이어 광택 놀랄 만큼 비싼 가격 때문에 가전류를 정말 좋아한다는 의구심이 생겼지만, 결과는 역시나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것. 오발을 건조시키는 시간이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보다 만족스러운 점은 정교한 온도 조절 기능 덕분에 두피와 얼굴이 전혀 건조하지 않는다는 것. 기존의 헤어드라이어가 단순한 송풍기로 느껴질 만큼 혁신적인 제품이다. 55만6천원. 문의 02-3479-1490. *by 에디터 배미진*

프렐쉬 슈가립 트리트먼트 파레팅 윈드 칙칙해질 땀기 오돌토돌한 미세도 애플리 케어티가 달린 립 트리트먼트로, 입술에 바른 원을 그나마 미사화해주면 아주 가벼운 정도로 각질이 슬슬 밀려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밀려난 각질만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내고 한 번 더 덧바르면 입술이 금세 촉촉하고 부드러워진다. 3ml 3만6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권유진*

설화수 자음생크림 피부 속 깊이 촉촉함을 전해주는 설화수의 시크너져 크림. 다양한 향의 제품을 사용해도 이만큼 빠른 효과와 부담 없는 재함을 겸비한 제품은 없었다. 2000년 출시되어 계속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에 특유의 향만으로도 좋고, 보습안으로도 믿음직스러운 결과를 느낄 만큼 즉각적인 수분 공급 효과가 뛰어나다. 60ml 2만5천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배미진*

에르메스 데르메스 2017 라미에스 에디션 그래픽 아티스트 나야넬 피코와의 컬러패티션으로 매년 시리즈로 선보이고 있는 데르메스의 세 번째 에디션이다. 다소 무겁고 소모가능한 남성적인 향이지만, 부드러운 면모 또한 지고 있어 중성적인 유니크한 향을 선호하는 여성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향수다. 100ml 15만5천원. 문의 02-310-5174. *by 에디터 권유진*

헤라 블랙 쿠션 꾸준히 헤라 쿠션 파운데이션을 써오다, 중간중간 다른 브랜드의 쿠션 제품도 많이 테스트해왔지만, 이 새로운 쿠션 팩트는 기존 제품과는 정말 다르다. 바르는 순간 피부가 자석처럼 피부에 척 달라붙고, 놀랍도록 촉촉하면서도 커버력이 떨어지는 유은 재질이 아-관 장이 가장 마음에 든다. 커버력과 지속력, 산뜻함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인생 쿠션이 될 듯하다. 15gX2 5만5천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이지현*

이슬 레저렉션 아이로미티 핸드 밤 전설적인 핸드크림, 강력한 수분 공급 기능과 끈적임 없는 텍스처,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향기 때문에 오랫동안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선물용으로든, 직접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다. 75ml 3만원. 문의 1800-1987. *by 에디터 배미진*

글레드호 보에 크림으로 루르 로 코르 늘 럭셔리하고 독보적인 텍스처를 선보이는 브랜드답게 휘핑크림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가 단연 돋보이는 보디 크림. 살구 추출물, 미조전 추출물이 보습 효과를 24시간 유지하고 다이스크로즈 유효가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 여러 번 덧바라도 부담스럽거나 끈적이지 않으며, 특히 종아리, 데콜레 라인에 비르면 매끄러운 광택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200ml 15만5천원. 문의 02-3438-6032. *by 에디터 권유진*

나스 밤피 라이드 블러셔 사랑스러운 다홍빛이 도는 블러셔로, 봄 느낌을 물씬 풍긴다. 화장이 잘 발은 날 기분을 좋게 두 볼 위에 가볍게 타치하면, 자연스럽고 건강한 활력을 연출한다. 취향에 따라 한 번 또는 여러 번 겹쳐 바를 땀을 원하는 경우 4.8g 4만 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지현*

샤셀 르 블랑 에디트 베이스 지금까지 사용해본 것 중 최고로 끈는 에디트 베이스. 자외선 차단 기능도 확실하고 끈적임이 없는 것은 물론 블러셔를 한 두 얼굴 톤 전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줘 피부 컬러를 교정하는 데 가장 확실한 효과를 선사한다. 베이스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 여성이라면 주목해볼 것. 다른 에디트 베이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함과 화사함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30ml 7만2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배미진*



LIFESTYLE



타켄 DIY 오디오 시스템 타켄은 주행의 즐거움을 배가해줄 자동차 브랜드 BMW와 MINI 전용 스피커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타켄은 DIY 개념을 카 오디오 시스템에 적용해 가구를 조립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누구나 도 직접 오디오 튜닝을 완성할 수 있는 스피커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판매하는 브랜드다. 노르웨이 SEAS에서 특수한 오디오 유닛을 사용하며, BMW는 4단계, MINI는 2단계의 업그레이드 세트 구성된다. 가격은 30만1천에서 1백38만 원. 문의 02-704-7249

JEWEL&WATCH

불가리 뉴 옥토 울트라레오 불가리는 강렬하면 서도 모던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 워치 피스 옥토 울트라 레오를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 1월 제네바에서 열린 프라-바젤 행사를 통해 공개한 시계로, 비늘, 아이리 마커 등에 컬러 포인트를 기어해 컬러 콘트라스트가 현대적이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을 자아낸다. 트윈 배럴을 갖춘 메카니컬 양방향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라버 BVL 193를 장착했으며, 100m 방수 기능을 지원한다. 국내 불가리 부티크에서 판매한다. 문의 02-2056-0171



타파니 타파니 아스트 웨스트™ 타파니는 매일 착용하기 좋은 워치 피스로 '타파니 아스트 웨스트™'를 제공한다. 타파니 아스트 웨스트™는 세로형 다이얼을 가로형으로 과감하게 바꾼 디자인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브랜드의 대표 시계 아이템이다. 4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TCO. 2558 스위스 메이드 오트매터 무브먼트를 장착한 바전을 남성용으로, 쿼츠 무브먼트의 아스트 웨스트 미니를 여성용으로 추천한다. 문의 02-547-9488



반클리프 아펠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부티크 오픈 반클리프 아펠은 브랜드의 하이 주얼리와 시

계를 갖춘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부티크를 오픈한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이 매장에서는 알함브라와 베를린 칼렉션, 플라워·발레리나·요정 클럽 등 예종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은 물론, 타이피스, 워딩 솔리테어 링 등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0798-852-16123

SHOWROOM

바버리 트로피컬 개비딘 트랜치코트 바버리는 심미성과 기능성 모두 갖춘 트로피컬 개비딘 트랜치코트를 새롭게 출시한다. 트랜치코트는 브랜드의 상징적인 패션 아이템이자 봄의 에센셜 아이템으로 손꼽힌다. 트로피컬 개비딘을 활용한 기존의 코튼 개비딘보다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단단한 트릴 구조로 피어비와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며,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무지개빛 컬러가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여성은 57지, 남성은 47지 사이즈로 선보인다. 문의 080-700-8800



몽클레르 왁스 재킷 몽클레르는 봄과 여름을 위한 패션 아이템으로 왁스 재킷을 선보인다. 2017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이 재킷은 코팅된 라케 코튼 소재로 제작해 페이먼트 특유의 반짝이는 효과와 비스락 거리는 촉감을 선사한다. 선명한 옐로, 맑은 하늘을 담은 스카이라인 등 비비드한 핑 컬러가 스타일에 신뜻함을 더해준다. 몽클레르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포함한 전국 몽클레르 매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2-514-0300



오브제 스프링 트위드 코트 오브제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트렌디한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스프링 트위드 코트를 추천한다. 화사한 멀티컬러와 슬림 핏이 이 트위드 코트는 오버사이즈로 제작된 것이 특징. 오피스 룩부터 캐주얼룩까지 다양한 차림에 활용 가능하다. 레드와 그린 컬러로 선보이며, 전국 주요 오브제 매장과 SK 패션몰(www.skfashionmall.com)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544-3966

토즈 셀라 백 토즈는 부드러운 곡선 라인의 실루엣이 럭셔리한 무드를 자아내는 '셀라 백'을 출시한다. 토즈 백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된 가방으로, 가죽 소재만 사용했으며 숙련된 장인이 핸드메이드 작업으로 완성한다. 가방 앞면에 대한 스티칭, 레더 조각을 이어 붙여 기하학적으로 완성한 일부 분 등의 디테일로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을 함께 구성했으며, 미니, 스몰, 미디엄 등 3가지 사이즈로 선보인다. 문의 02-3438-6008

에르메스 2017 S/S 컬렉션 프레스 프레젠테이션 에르메스는 2017 S/S 컬렉션을 소개하는 프레스 프레젠테이션을 성공리에 마쳤다. 지난 2월 8일 메종 에르메스 도산파코에서 진행된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2017년 테이닝 오브제의 의미를 바탕으로 브랜드가 가져야 할 바르보는 사선과 직선을 소개했다. 세련미가 느껴지는 남성 컬렉션, 타임리스 디자인의 여성 컬렉션, 홈 컬

오브제 스프링 트위드 코트 오브제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트렌디한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스프링 트위드 코트를 추천한다. 화사한 멀티컬러와 슬림 핏이 이 트위드 코트는 오버사이즈로 제작된 것이 특징. 오피스 룩부터 캐주얼룩까지 다양한 차림에 활용 가능하다. 레드와 그린 컬러로 선보이며, 전국 주요 오브제 매장과 SK 패션몰(www.skfashionmall.com)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544-3966

리빙스포츠 자오메트릭 프린트 셔츠 리빙스포츠는 다채로운 스타일링을 즐기기에 좋은 자오메트릭 프린트 셔츠를 제공한다. 앞면에 기하학적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으로, 세련된 실루엣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이너로 활용하거나 아

